

# 柔道

2025 가을호 유도를 사랑하는 사람들 judo.sports.or.kr



vol. 143

## 특집

2025 라인루르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한국유도, 종합 2위  
금메달 4개, 동메달 3개 획득

## 특별 인터뷰

배낙호 김천시장

## 유망주를 찾아서

여초부 -32kg 동주초등학교 이다인

## 유도학개론

2025 유도 룰, 어떻게 바뀌었나

## 데이터랩

세계랭킹 1위의 올림픽 우승 확률은?



대한유도회  
Korea Judo Association



143



# CONTENTS

2025 AUTUMN  
VOL. 143



## 2025 AUTUMN KOREA JUDO ASSOCIATION VOL.143

**발행일**  
2025년 9월 25일 | 통권 143호

**등록번호**  
송파 바 00008

**등록일자**  
1986년 9월 30일

**발행인 겸 편집인**  
조용철

**인쇄처**  
(주)제이앤제이미디어

**발행처**  
대한유도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올림픽회관 신관 317호

TEL 02-422-0581  
FAX 02-420-4995  
Homepage judo.sports.or.kr  
E-mail judo@sports.or.kr



### 특별 인터뷰

02 뽀속까지 유도인, 배낙호 김천시장

### 특집

08 2025 라인루르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14 대회리뷰, 김중훈(-90kg 금메달) 인터뷰

### 국제대회

16 2025 올란바타르 그랜드슬램

### 국내대회

18 제16회 청풍기 전국유도대회  
20 2025 백제왕도 익산생활체육 전국유도대회  
22 2025 김천컵 전국유도대회  
24 제41회 교보생명컵 꿈나무유도대회

### 인터뷰

26 국가대표 전력분석관, 다나카 미키

### 현장을 찾아서

28 첫 질서상 품은 JNS 유도멀티짐  
30 임희대 감독이 들려주는 드림 업 캠프 후기

### 유망주를 찾아서

32 여초부 -32kg급 최강자 이다인(동주초)

### 마니아열전

34 유튜브 '홍관장 TV', 홍지환 관장을 만나다

### 맞수대전

36 경기체고 장혜윤 vs 광주체고 김하은

### 유도학개론

38 2025 유도 룰, 어떻게 바뀌었나

### 데이터랩

40 세계랭킹 1위의 올림픽 우승 확률은?

### NEWS IN JUDO

42 유도 뉴스 및 유도인 동정

### RECORD

46 유도 기록실  
52 2025년 제3차 정기승단자 명단



## 뺏속까지 유도인, 배낙호 김천시장

“유도 없이는  
지금의 나도 없었다”

“제게 유도는 단순한 운동이 아닌, 인생의 철학이자 삶의 중심축입니다.” 첫마디부터 유도인다웠다.

배낙호 김천시장은 지난 9월 19일 청사 접견실에서 진행한 본지 인터뷰에서 “유도가 내 안에 뿌리내린 존중과 성실, 인내의 정신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며 이같이 말했다.

글. 송현일 기자 사진. 문복주 기자

배 시장은 뺏속부터 유도인이다. 대한유도학교(지금의 용인대학교) 총학생 회장을 역임한 엘리트 선수 출신으로, 은퇴 이후 지역 행정가로 변신한 뒤 에도 김천시체육회와 유도회에 몸담으며 도복의 끈을 풀지 않았다. 그와 오랜 시간 잘 알고 지낸 양희철 김천시유도회장은 배 시장을 “덕망 높은 인사 일 뿐 아니라 유도, 나아가 스포츠에 대한 애정이 지극한 인물”이라고 말했다.

그런 배 시장은 최근 유도인으로서 또 한 번 의미 있는 발걸음을 내디뎠다. 지난 8월 8일부터 13일까지 김천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5 김천컵 전국 유도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김천시 유도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것. 한 유도인은 “이번이 첫 개최인데도 초등부부터 일반부까지 대회 운영이 모두 매끄러웠다”며 “장차 메이저 대회로 성장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제1회 김천컵 전국유도대회를 개최하게 된 배경과 의미는 무엇입니까?

김천은 오래된 유도 전통을 지닌 도시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최민호, 김 재범을 배출했습니다. 최근 허미미, 김지수 선수가 세계 무대에서 성과를 내 며 제2의 전성기를 열고 있습니다. 김천컵 전국유도대회는 이런 흐름을 잇 기 위한 출발점이자, 김천을 ‘대한민국 유도의 중심 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중요한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대회는 시장님께 어떤 의미였고, 가장 큰 성과는 무엇이라 보십니까?

유도인 출신으로서 김천 유도의 영광을 되살려야 한다는 책임감을 늘 안고 있었습니다. 대회의 성공적 개최는 그 부담을 덜고, 유도 발전의 마중물이 되었다는 점에서 뜻깊었습니다. 전국에서 1만여 명이 참여해 약 15억 원의

경제 효과를 거두었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스포츠가 지역사회와 경제에 주는 힘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김천컵 대회를 어떻게 발전시킬 계획인가요?

차세대 유망주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만큼, 김천컵을 전통 있는 전국대회로 키워 나가겠습니다. 전국 규모 대회를 지속 개최해 저변을 넓히고, 학교 유도팀과 동호인 활동을 지원해 지역 유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이를 통해 유도 명문 도시 김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대학 입학하며 새긴 유능재강 정신,  
지금까지도 내 가장 큰 정치적 자산”**

정치인으로서 배 시장은 바닥부터 기초를 다진 사려다. 과거 박팔용 전 김천시장의 정무비서를 지냈고, 시의원(장)으로도 오래 활동하는 등 정계와 행정계에서 잔뼈가 굵다. 그런 만큼 지역사회에서 그의 입지는 상당하다. 국민 의힘 소속으로 나선 지난 4월 2일 김천시장 재선거에선 득표율 51.86%를 기록하며 당선되기도 했다.

이처럼 탄탄한 정치 기반을 갖춘 배 시장인데, 특히 스포츠 행정 분야에선 전국구로 꼽힌다. 프로축구 김천 상무의





새로운 스타를 키우려면 발굴부터 성장, 은퇴 이후까지 이어지는 종합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 조기 발굴 시스템을 강화하고, 학교·클럽 연계와 지역 리그 활성화로 실전 경험을 넓히겠다.

대표이사를 맡은 경험도 있다. 이런 그는 “나의 시정 철학은 유능제강(柔能制剛)과 닮았다. 부드러움으로 강함을 제압한다는 이 정신은 단순한 기술적 원리를 넘어, 삶과 리더십 전반에 통하는 깊은 철학”이라고 소개했다.

대한유도학교(현 용인대학교) 총학생회장 출신이자 유도인으로서, 유도가 시장님의 삶과 시정 운영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궁금합니다.

제게 유도는 단순한 운동이 아닌 인생의 철학이자 삶의 중심축입니다. 가장 큰 가르침은 상대를 존중하며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정신입니다. 시정을 이끌며 제가 지향하는 것도 권위가 아닌 시민을 향한 진정성과 책임입니다. 유도가 심어준 존중, 성실, 인내의 정신이 지금의 저를 만든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유도 정신 가운데 시장님의 행정 철학과 가장 닮은 것은 무엇인가요?

유능제강을 꼽고 싶습니다. 부드러움으로 강함을 제압한다는 철학은 행정에도 그대로 통합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갈등을 유연하게 풀어내며, 그 과정을 시정의 동력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믿습니다. 부드러움 속 강함,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자세가 제가 지향하는 리더십입니다.

유도 경험이 시정을 이끄는 데 어떤 힘이 되고 있나요?

유도에서 배운 가장 큰 자산은 리더십과 소통입니다. 총학생회장 시절 조직을 운영한 경험은 지금 시정의 밑거름이 됐습니다. 유도는 혼자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해야 성과를 내는 운동이고, 시정도 시민과 공직자가 힘을 모을 때 비로소 발전할 수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끝까지 밀어붙이는 추진력 역시 유도가 길러준 힘입니다.

**“김천시 유도 부흥 위해서라면 작은 힘이라도 기꺼이 보탬 것”**

“유도 명문 도시로서 김천시의 위상을 더 공고히 하고, 대한민국 유도 중심지로서 김천시의 브랜드 가치를 한층 높여 나가겠다.” 김천시는 2008년 베이징 하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최민호와 2012년 런던 대회 금메달리스트 김재범 등을 배출한 유도 명가다. 하지만 지금은 그 명성이 과거보다 조금 떨어진 상태다. 무엇보다 김천시 자체가 ‘인구감소 관심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는 만큼, 선수 수급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배 시장도 이런 현실을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다. 시장이기 전에 그는 행정가로서 김천시 유도 전성기를 이끈 장본인. 최근 김천시 유도 부흥을 위해 다시 두 팔을 걷어붙인 그와 많은 얘기를 나눴다.

김천 내 유도 인프라 발전을 위한 구상은 무엇입니까?

엘리트 선수들이 최상의 환경에서 훈련할 수 있도록 올해 1억 원을 투입해 시설을 보강했습니다. 앞으로 지도자 확보, 장비 지원, 합숙 시스템도 갖추



겠습니다. 동시에 시민 누구나 유도를 즐길 수 있도록 생활체육 유도 교실을 청소년·어르신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인성 교육과 학교 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유도를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가요?

유도의 ‘예시예종’ 정신은 아이와 학생들에게 존중과 배려, 협동심을 길러주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김천의 미래인 유·청소년들에게 이러한 가치를 전하고자 현재 석천중과 중앙고 유도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중앙고의 남녀공학 전환에 맞춰 여성 유도부를 신설하는 등 앞으로도 계속 유도의 저변 확대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제2, 제3의 최민호, 김재범을 육성하기 위한 제언이 있나요?

새로운 스타를 키우려면 발굴부터 성장, 은퇴 이후까지 이어지는 종합 지원 체계가 필요합니다. 조기 발굴 시스템을 강화하고, 학교·클럽 연계와 지역 리그 활성화로 실전 경험을 넓히겠습니다. 우수 선수들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훈련 인프라와 지도자 역량을 강화하며, 정서적·사회적 지원도 병행해야 합니다. 김천시는 작은 부분이라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들과 유도인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은요?

시민 여러분의 동행이 있었기에 제가 이 길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김천의 새로운 100년을 열어가겠습니다. 또한 유도인 여러분께도 존경과 격려를 드립니다. 유도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정신과 공동체의 가치를 담은 운동입니다. 저 역시 이 가치를 행정에 실천하며, 김천과 대한민국 유도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독일 라인루르의 여름,  
그들은 다시 매트 위에 섰다.  
멈추지 않는 도전, 주저하지 않는 투혼.  
허미미의 연속된 황금빛,  
김종훈의 다시 한 번의 반란,  
그리고 여자 유도의 눈부신 약진.  
금메달 네 개, 동메달 세 개.  
숫자는 기록일 뿐,  
진짜 이야기는 그 안에 있었다.

초여름 부다페스트를 강타했던 올림은,  
한여름 이곳 독일까지 이어졌다.  
우리는 지금,  
그 금빛 여정을 다시 마주한다.



## 허미미·장세윤이 연 문, 김종훈·김하윤이 닫았다 한국 유도, 금 4개·동 3개 휩쓸며 종합 2위

2025 라인루르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한국 유도 국가대표팀이 7월 23일부터 27일까지 독일에서 열린 2025 라인루르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에서 금메달 4개와 동메달 3개를 획득하며 일본(금 7·은 2·동 5)에 이어 종합 2위를 기록했다. 특히 여자부는 개인전에서 금메달 3개와 동메달 1개를 챙기며 2015년 광주 대회(금 3·은 2·동 2)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빛나는 성적을 남겼다.

글. 송현일 기자 사진. FISU



첫날부터 금빛 쌍끌이, 허미미·장세윤이 해냈다

한국 유도가 대회 첫날부터 금빛 소식을 전했다. 여자 -57kg급 허미미(경북체육회)와 -52kg급 장세윤(KH필룩스)이 나란히 금메달을 목에 걸며 대표팀 분위기를 단숨에 끌어올렸다. 허미미는 대회 2연패에 성공하며 체급 최강자의 위상을 굳혔고, 장세윤은 흔들림 없는 경기력으로 차세대 주역의 가능성을 선명히 증명했다.

허미미는 초반부터 흔들림 없는 경기 운영으로 흐름을 주도했다. 2회전에서 알리시아 마르틴 힐(스페인)을 상대로 소매들어엎어치기 절반으로 제압한 뒤, 3회전에서 라우라 칼링거(오스트리아)를 누르기 한판으로 꺾으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계속해서 준결승전에서는 오노 모아(일본)와 치열한 승부 끝에 엎어치기 유효를 챙겼고, 결승전에서는 로자 기에르티아스(헝가리)를 상대로 누르기과 엎어치기로 절반 두 개를 쌓아 한판승으로 경기를 마무리했다.

“지난 대회 우승 이후 지켜야 한다는 부담이 컸다. 하지만 내 유도를 끝까지 밀고 나가 2연패를 이뤄 더 값지다.” 경기 직후 허미미의 말에는 타이틀 방어에 성공한 자신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장세윤 역시 안정적인 운영으로 결승에 올랐다. 2회전에서 신디 바인슈타인(몰도바)을 허벅다리걸기 한판으로 잡은 뒤, 테레자 보드나로바(체코)와 부켓누르 카라불루트(터키)를 연달아 누르기로 제압했다. 이어진 결승전에서는 일본의 후쿠나가 하코와 맞붙었다. 장세윤은 차분히 경기를 운영하며 상대 지도를 세 차례 끌어냈고, 결국 반칙승으로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 올랐다.

그는 “첫판부터 흐름이 잘 풀렸다.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놓치지 않은 게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적





은 국제무대 경험에도, 흔들림 없는 운영으로 가능성을 분명히 한 하루였다.

한편 남자부에선 메달 소식이 나오지 않았다. -60kg급 황혜성(용인대)은 1회전에서 무하마드 삼수도하 수로브(방글라데시)를 안오금찍기 한판으로 제압했으나, 2회전에서는 알렉산드루 티르시나(몰도바)의 되치기에 무릎을 꿇었다. -66kg급 윤현수(한국체대)는 2회전에서 부상으로 기권패하며 미키타 홀로보로드코(우크라이나)에게 승리를 내줬다. -48kg급 간판 이경하(제주특별자치도청)도 2회전에서 다이아나 부르케예바(카자흐스탄)에게 허리허리기 되치기로 유효를 내주는 등 아쉬움을 남겼다.

첫날 두 개의 금메달은 단순한 성과 이상의 의미를 지녔다. 허미미가 확고한 정상 자리를 다시 입증했고, 장세운이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만큼 한국 여자 유도의 무게감은 한층 커졌다. 더불어 이들이 대회 첫날부터 올린 금빛 소식은 이번 대회의 향방을 밝히는 시작점이 됐다.



### 세계랭킹 2위 이준환, 동메달 메쳤지만 “더 높이 오르지 못해 아쉬움 남는다”

한국 유도는 둘째 날 동메달 하나를 더 보탤다. 주인공은 -81kg급 이준환(포항시청). 그는 기대대로 시상대에 올랐지만, 스스로 만족하지 못했다.

이준환의 하루는 순탄치 않았다. 2회전에서 레이 찰 라오(마카오)를 상대로 소매를 깊게 잡아끌어 단숨에 메치며 소매들어업어치기 한판승을 거뒀다. 그러나 3회전에서는 일본의 아마노 카이토에게 덜미를 잡혔다. 집요한 잡기 싸움 끝에 그라운드로 끌려간 그는 빠져나오지 못하고 누르기를 허용해 끝내 한판패를 당했다. 세계랭킹 2위라는 기대치에는 분명 아쉬운 결과였다. 하지만 곧바로 반등했다. 패자부활전에서 노디르벡 마블론베르디예프(우즈베키스탄)를 안오금찍기로 제압하며 흐름을 되찾았고, 동메달 결정전에서는 미국의 요한 실로트를 몰아붙였다. 상대의 균형이 흔들린 순간 소매를 깊게 당겨 업어치기를 시도했고, 실로트의 등이 매트에 꽂히자 심판은 곧바로 이준환의 한판을 선언했다. 깔끔한 마무리였다.

시상대에 올랐지만 그의 표정은 무거웠다. 이준환은 “메달을 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세계랭킹 2위로 나선 만큼 더 높은 곳을 노렸는데,

스스로 아쉬움이 남는다”고 털어놓았다. 황희태 대표팀 감독은 “실수를 최소화하며 안정적인 경기를 했지만, 결승까지 이어가진 못했다. 그래도 동메달을 지켜낸 건 충분히 값진 성과”라고 전했다.

같은 날 -73kg급 안재홍(한국마사회)은 1회전에서 아네이 두카리치(슬로베니아)를 업어치기 유효로 꺾었으나, 2회전에서 아르멘 아가이안(개인중립국)에게 허벅다리걸기 절반패를 당했다. -63kg급 신채원(순천시청)은 1회전에서 라파엘라 곤잘레스(브라질)를 지도 세 차례로 제압했지만, 2회전에서 다니오카 나루미(일본)에게 같은 방식으로 반칙패하고 말았다. -70kg급 이예랑(한국체대)은 2연승으로 기세를 올렸으나, 3회전에서 타이스 피나(포르투갈)에게 누르기 한판을 내주고, 패자부활전에서도 피단 오겔(터키)에게 허리허리기 되치기로 패하며 도전을 마쳤다.

이들간 한국은 허미미와 장세운의 금메달, 이준환의 동메달을 합쳐 총 세 개의 메달을 따냈다. 특히 이준환은 지난



해 파리 하계올림픽 동메달과 올해 세계선수권대회 3년 연속 동메달에 이어 또 한 번 국제대회 시상대에 오르며 한국 남자유도의 확실한 에이스로 자리매김했다.

### ‘111위의 반란’은 계속된다, 김종훈 다시 한번 **金** 메쳐

단 하루 만에 금메달 2개, 동메달 1개. 한국 유도가 셋째 날 거둔 성과다. -90kg급 김종훈(양평군청)과 +78kg급 김하윤(안산시청)이 나란히 정상에 섰고, -78kg급 김민주(광주교통공사)도 동메달을 추가하며 한국 선수단의 시상대는 한층 두터워졌다.

가장 큰 주목을 받은 건 김종훈이었다. 2월 파리 그랜드슬램에서 세계랭킹 111위 무명선수의 ‘깜짝우승’을 차지했던 그는 이번 대회에서도 흔들림 없는 기량으로 다시 정상에 오르며, 파리에서의 이번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음을 증명했다.

김종훈은 1회전에서 키르기스스탄의 아나르벡 이센바예프를 빗당겨치기 한판으로 꺾은 뒤, 2회전과 3회전에서 라도미르 무실(체코)과 나체 페츠니크(슬로베니아)를 각각 업어치기와 안뒤축걸기로 제압했다. 준결승전에서는 일본의 가와바타 고메이를 상대로 업어치기를 성공시켜 결승에 올랐고, 마지막 상대 엘잔 하지예프(아제르바이잔)와 승부에서는 치열한 공방 끝에

과감히 파고들어 안다리걸기 절반을 얻어내며 금메달을 확정했다. ‘111위의 반란’에 이어 다시 한번 세계 무대를 뒤흔든 것이다.

경기 후 김종훈은 “그랜드슬램은 나 자신도 놀란 결과였다면, 이번에는 준비한 만큼 경기가 풀려서 더 만족스럽다. 조금은 자신감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황희태 대표팀 감독은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선수다. 기술뿐 아니라 경기 운영에서도 여유가 생겼다”고 얘기했다.

그런가 하면 김하윤은 한국 여자 유도 최중량급 간판답게 안정된 경기 운영으로 금메달을 차지했다. 2회전에서 니가르 솔레이마노바(아제르바이잔)에게 안다리걸기 절반승을 거뒀고, 3회전에서도 아케르케 라마자노바(카자흐스탄)를 안다리걸기 한판으로 꺾었다.

그런 뒤 그는 준결승전에서 자 촌디(중국)를 또 한 번 안다리 걸기 유효로 물리쳤고, 결승전에서마저 무쿠노키 미키(일본)를 상대로 안다리걸기를 성공시키며 절반승을 따냈다. 이날 네 번의 맞대결을 모두 안다리걸기로 마무리한 셈이다.

김민주도 -78kg급에서 값진 동메달을 보냈다. 2회전에서



사라 레이첼 베베리안(미국), 3회전에서는 엠마 크라푸(핀란드)를 업어치기 한판으로 제압하며 기세를 올렸으나, 준결승전에서 베아트리스 프레이타스(브라질)에게 지도 세 차례를 허용해 결승 문턱에서 멈췄다. 그러나 동메달 결정전에서 비키 베르샤에르(벨기에)를 상대로 업어치기 유효를 따내면서 끝내 시상대에 올랐다.

남자 +100kg급 강자 송우혁(하이원)은 다소 아쉬움을 남겼다. 1회전을 부전승으로 통과했으나, 2회전 이슬롬벡 라브산쿨로프(우즈베키스탄)와 승부에서 지도 세 차례를 내주며 반칙패했다. 몇 차례 주도권을 잡을 기회가 있었지만 이를 좀처럼 살리지 못한 채 결국 무대를 내려와야 했다.

셋째 날 성과로 한국은 금메달 4개, 동메달 2개를 확보하게 됐다. 김종훈의 상승세와 김하윤의 꾸준한 정상 질주, 김민주의 도약이 더해진 이날은 한국 유도가 대회 초반 기세를 굳히는 확실한 분수령이 됐다.

### 마지막 날까지 흔들림 없었다, 단체전 동메달로 완벽한 마침표

앞서 개인전에서 금메달 4개, 동메달 2개를 기록한 대표팀은 마지막 날 단체전 ‘유종의 미’까지 거두며 이번 대회를 총 7개 메달로 마무리했다.

대표팀은 2회전에서 몰도바를 4-2로 꺾은 뒤, 브라질과의 3회전에서도 4-1 완승을 거두며 준결승에 진출했다. 그러나 준결승전에서는 일본과 접전 끝에 2-4로 패해 결승 진출에는 실패했다. 하지만 곧바로 열린 동메달 결정전에서 네덜란드를 4-0으로 제압하며 시상대에 올랐다.

이날 경기에는 김종훈, 김하윤, 허미미, 안재홍, 이예랑, 송우혁 등이 출전해 고른 활약을 펼쳤다. 특히 동메달 결정전에서는 이예랑, 김종훈, 김하윤, 송우혁이 연달아 승리를 따내며 한 점도 내주지 않는 완승을 거뒀다.

이로써 한국은 이번 대회를 금메달 4개, 동메달 3개로 마치며 개인전과 단체전 모두에서 입상에 성공했다.

이번 대회에서 한국 여자 유도는 특히 눈부신 성과를 거뒀다. 허미미, 장세윤, 김하윤이 나란히 금메달을 따냈고, 김민주가 동메달을 보태며 개인전에서만 네 차례 시상대에 올랐다. 2015년 광주 대회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좋은 성적이다. (柔)





“111위의 반란,  
이제 막  
시작일 뿐이에요!”

한국의 남자 유도  
종량급의 새 이름 김중훈



“선수라면 누구나 금메달을 목표로 하지만, 솔직히 정말 우승할 줄은 몰랐죠. 주변에서도 다들 깜짝 놀라는 분위기였어요.” 최근 서울 노원구 태릉선수촌에서 만난 김중훈(양평군청)이 ‘파리의 기적’을 떠올렸다. 지난 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유도연맹(IJF) 그랜드슬램. 출전 당시 무명이던 그는 이 대회 깜짝 우승 이후 한국 남자 유도 90kg급 기대주로 올라섰고, 스스로도 “파리 그랜드슬램은 내 유도 인생의 터닝포인트”라며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

글. 송현일 기자 사진. 문복주 기자

김중훈은 지난 2월 3일 파리에서 열린 파리그랜드슬램 -90kg 체급 결승전에서 2023 도하 세계선수권대회 챔피언 루카 마이수라제(조지아)를 연장 혈투 끝에 엎어치기 한판으로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그는 이 대회 전까지만 해도 세계랭킹이 111위에 불과한 무명 선수였는데, 준결승전에서 2024 파리 하계올림픽 동메달리스트 막심가엘 앙부(프랑스)를 제압하는 파란을 일으키더니, 우승 문턱에서 결국 또 한 번 ‘일’을 내고야 말았다.

IJF도 이 소식에 주목했다. 대회가 끝난 뒤 “김중훈은 세계 111위로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선수다. 그동안 그랜드슬램에서 단 1개의 메달도 못 땀는데, 이번에 금메달을 수확했다”며 놀라움을 드러냈다. 이에 김중훈은 “1이 3개나 있어서 우승의 기운이 전부 내게 왔던 것 같다”며 웃었다.

그토록 바란 메이저 대회 첫 우승이지만, 김중훈은 스스로를 더 강하게 채찍질했다. “한 번 우승을 했기 때문에 이제 성적 내기가 더 어려울 거다. 상대 선수들의 분석과 견제가 앞으로 더 심해질 거기 때문에 너도 그만큼 준비를 더 많이 해야 한다”는 황희태 한국 남자 유도 대표팀 감독의 조언에 그 역시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 덕분일까. 김중훈은 7월 라인루르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같은 체급에서 또 한 번 금맥을 터뜨렸다. 결승전에서 무려 세계랭킹 3위 하즈 예프 엘잔(아제르바이잔)을 누르고 이룬 쾌거. “파리 그랜드슬램 이후 다시 증명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렇게 또

한 번 국제대회 정상에 올라 기쁘고 다행스럽다. 활짝 웃어 보인 그는 “이번 우승을 계기로 앞으로 더 꾸준히 국제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선수가 되겠다”고 힘줘 말했다.

김중훈의 ‘역전 드라마’는 숫자로도 나타났다. 9월 17일 현재 16위. 올초만 해도 100위권 밖이던 세계랭킹이 불과 반 년 만에 100계단 가까이 상승한 것. 하지만 그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며 손을 저었다. 그러면서 “아시안게임과 올림픽 무대에서 메달을 따는 그날까지, 멈춤은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 고1에 유도 입문해 국제대회 우승까지…

“토끼 아닌 거북이 같은 선수 될래요” “고등학교에 처음 입학할 때, 부모님이 무사히 졸업만 해 달라고 부탁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웃으며 털어놓은 김중훈의 말은 웬지 묵직하게 다가왔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중학교까지만 해도 취미로 유도를 즐기다, 송도고에 진학하면서 본격적으로 운동을 시작했다. 더욱이 다른 사람의 추천도 아닌, 스스로 결심해 엘리트 선수로 전향한 케이스.

하지만 김중훈은 주변의 우려 섞인 시선이 아닌, 자신의 마음속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한 번 시작한 이상 국가대표가 되고 말겠다”며 하루가 멀다고 다짐했다. 그렇게 ‘악바리 정신’으로 무장한 그는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었다. 대학 동기인 김민중(양평군청) 등이 일찍이 이름을 알리는 것을 보면서, ‘언젠가는 나의 날이

온다고 스스로를 격려하며 흔들리지 않았다. 늦게 핀 꽃은 더 아름다웠다. 오늘날 김중훈은 현재 한국 남자 유도 90kg급을 대표하는 선수. 그래도 ‘111위 시절’은 절대 잊지 않겠다고 했다. 언젠가 올림픽 매트에 설 날을 그리며, “이미 한 번 이변을 일으켰는데 두 번은 못 일으키겠다. 그날의 간절함과 자신감을 안고 꼭 한 번 더 기적을 메치겠다”고 외쳤다.

“늦게 이름을 알렸지만, 그만큼 더 오래 기억되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도와 주신 대한유도회와 지도자 선생님들께 큰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더 좋은 성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





실업팀 1년 차 양지혁(한국마사회)이 베테랑 김찬녕(하이원)을 꺾고 2025 국제유도연맹(IJF) 올란바타르 그랜드슬램 남자 -66kg급에서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성인 국제대회에 처음 출전해 거둔 성과다.

글. 송현일 기자 사진. IJF

## 동메달 두고 펼친 집안 대결 ‘뜨는 해’ 양지혁을 주목하라

### 2025 올란바타르 그랜드슬램

양지혁은 7월 25일 몽골 올란바타르에서 열린 대회 이 체급 3위 결정전에서 5분 38초간 혈투 끝에 김찬녕을 업어치기 한판으로 누르고 동메달을 차지했다.

8강전에서 2024 파리 하계올림픽 동메달리스트 데니스 비에루(몰도바)에게 유효 1개를 허용, 아쉽게 진 양지혁은 패자부활전에서 엘산 아사도프(아제르바이잔)를 제압한 뒤 김찬녕을 만나 입상에 성공했다.

반면 준결승까지 진출하며 우승 가능성을 엿보던 김찬녕은 결승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압두라힘 누트폴로예프(우즈베키스탄)에게 덜미를 잡혔고, 이후 양지혁에게 패하며 빈손으로 대회를 마쳤다.

양지혁은 용인대 시절까지만 해도 유망주 이미지가 강했는데, 올초 한국마사회 입단 이후 달라진 모습을 보이는 중이다. 4월 양구 전국실업유도선수권대회 우승을 차지하는 등 경량급 신홍 강자로 떠올랐다.



그런 와중 이번 대회에서 현역 국가대표 김찬녕까지 잡아냈다. 김찬녕은 최근 몇 년간 대표팀을 지낸 강자. 양지혁이 체급 서열에 지각변동을 예고했다.

통영초 보성중 보성고 용인대를 나온 양지혁은 유도 집안에서 자랐다. 아버지와 여동생 두 명이 모두 유도 선수 출신이다. 둘째 양지민(용인대)은 지난해 아시아청소년선수권대회 여자 -63kg급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막내 양지연(광영여고) 역시 고등학교 1학년 이던 2023년 전국체육대회 여고부 같은 체급 우승을 차지한 실력자다. 세 남매 모두 일찍이 주목받은 재능이다.

양지혁은 아직 성인 국가대표 경험이 없다. 고교 시절 부상으로 태극마크의 꿈을 포기한 아버지를 대신해 올림픽 무대를 밟는 것. 유도를 처음 시작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놓지 않은 바람이다. 22세 양지혁의 대표팀 도전기는 이제 시작이다. 지금의 성장세라면 머지않았다. ㉸



# 한국유도의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 제16회 청풍기 전국유도대회



7월 9일부터 14일까지 6일간, 청주체육관에서 '제16회 청풍기 전국유도대회'가 열렸다. 올해로 16회를 맞은 청풍기 대회는 유도 유망주 발굴과 저변 확대를 위한 무대로 자리매김하며, 명실상부 한국 유도의 현재와 미래를 확인할 수 있는 장이 됐다.

글: 서호만 기자 사진: 박상혁 기자

### 초등부부터 일반부까지...누가 잘했나

또 하나의 유망주가 여초부에서 등장했다. 철원초 김가은은 여초부 +57kg급 경기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며 두각을 나타냈다. 김가은은 이번 대회에 앞서 강원소년체전, 양구평화컵, 전국소년체전에서도 같은 체급에서 모두 우승을 차지하며, 이번 대회까지 포함해 개인전 4관왕에 올랐다.

김가은이 소속된 철원초는 개인전뿐 아니라 단체전에서도 강세를 보였다. 단체전에서도 강원소년체전과 양구평화컵에 이어 3관왕에 오르며, 초등부 최강자의 면모를 확실히 입증했다. 김은솔이 -44kg급에서 준우승, 김노을(-40kg)과 남효주(-52kg)가 각각 3위를 차지하는 등 철원초 유도팀은 전 체급에서 고른 활약을 보이며 개인전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거뒀다.

남자 일반부 -100kg급 결승에서는 한경진(양평군청)이 김도훈(남양주시청)을 안다리 한판으로 꺾고 금메달을 차지했다. 이로써 한경진은 지난 7월 열린 양평몽양컵 대회에 이어 시즌 두 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경기 후 한경진은 “시즌 초반에는 부진해 성적이 좋지 않았지만, 많이 노력했다”며 “군청의 전지훈련 등 전폭적인 지원이 선수단 전체의 기량 향상으로 이어졌다”고 소감을 밝혔다.

여자 유도의 새로운 기대주로 떠오른 정선아(마산대)는 지난 7월 양평몽양컵에 이어 또다시 시상대 가장 높은 자리에 섰다. 정선아는 여대부 +78kg급 결승에서 용인대 김미경을 상대로 발기술로 유효를 따내며 우승을 차지, 2개 대회 연속 정상에 올랐다. 그는 “꾸준한 훈련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며 “앞으로 더 열심히 해 좋은



선수로 성장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정선아가 소속된 마산대는 여대부 단체전에서도 우승을 차지했으며, 남대부 단체전에서도 3위에 오르며 고른 활약을 보였다. 지방 2년제 대학이라는 열악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4년제 대학과 맞설 수 있는 경쟁력을 입증했다.

### ‘강팀의 면모’ 경기대·순천시청·경민고의 상승세

경기대는 이번 대회에서 무려 3명의 개인전 우승자를 배출하며 강호의 저력을 드러냈다.

남대부 +100kg급 강재훈은 김윤건(대구과학대)을 발기술 절반과 굳히기 절반을 더한 한판승으로 꺾고 1위를 차지했다.

여대부에서도 두 명의 금메달리스트가 나왔다. 윤우미는 -63kg급 결승에서 차아리(용인대)를 상대로 조르기 후 굳히기 한판승, 류소영은 -52kg급 결승에서 이다인(한국체대)을 발뒤축 걸기 한판승으로 물리치며 각각 금메달을 따냈다.

순천시청은 여자 개인전과 단체전에서 금메달 1개, 은메달 3개, 동메달 1개로 총 5개의 메달을 수확했다. 개인전에서는 박다솔이 -57kg급에서 금메달을, 김지정(-70kg)과 신지영(+78kg)이 은메달을, 양서우(-52kg)가 동메달을 따냈다. 단체전에서는 부산 북구청을 꺾고 결승에 올랐으나 아쉽게 패하며 은메달에 만족해야 했다. 그럼에도 실업 최강팀다운 저력을 보여준 대회였다.

고교 명문 경민고는 남고부 단체전에서 시즌 3관왕을 달성하며, 명문팀의 이름값을 지켰다.

4장에서 화성 비봉고를 4-0으로 완파한 경민고는, 청주 청석고를

꺾고 결승에 오른 남녕고를 상대로 접전 끝에 우승을 차지했다. 김민준과 엄정현이 각각 유효승, 기권승을 거두며 2-0 리드를 잡았지만, 김승기와 홍지민이 각각 이재준, 홍승운에게 패하며 2-2 동점을 허용했다. 이어 개인전 -81kg급 우승자인 최성준이 한판승으로 리드를 되찾았으나, 정민국이 지도패를 당하며 승부는 마지막 경기로 넘어갔다. 결국 마지막 주자 차서율이 정지환을 상대로 유효승을 따내며, 경민고가 극적인 우승을 완성했다.

### ‘청풍기 스타’ 문준서, 시즌 전관왕을 향해

문준서(과천중)의 가파른 성장세는 단연 눈에 띈다. 그는 남중부 -90kg급 결승에서 장민서(부평서중)를 굳히기 절반에 이은 업어치기 한판승으로 제압하며 또 한 번 정상에 올랐다. 이번 청풍기 우승으로 문준서는 올 시즌 6관왕에 등극했다.

그는 올 3월 회장기 전국유도대회와 춘계 초·중·고 유도연맹전을 시작으로, 4월 용인대총장기, 5월 양구평화컵과 전국소년체전, 그리고 7월 청풍기까지 출전한 모든 대회에서 무패 우승을 기록하고 있다. 184cm, 90kg의 우수한 신체 조건에 성숙해진 기술력이 더해지며, 올 시즌 참가한 6개 대회를 모두 제패한 것이다.

문준서의 목표는 이제 남은 5개 대회까지 모두 석권해 시즌 전관왕(11관왕)을 달성하는 것. 그는 “방심은 금물이지만, 전관왕이라는 목표를 꼭 이루고 싶다. 부상만 없다면 충분히 도전해볼 만하다”며 “아직 부족한 기술은 더 보완해 연습을 이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전문가들은 문준서가 지금 당장 고등부 무대에 올라서도 메달권에 진입할 수 있는 실력을 갖췄다고 평가한다. 특히 큰 키에도 불구하고 업어치기 기술에서 강점을 보여, 서구권 장신 선수들을 상대로도 국제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고교 무대라는 새로운 환경에 대해 우려의 시선도 있지만, 문준서는 “패배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성장을 위한 자양분으로 삼겠다”며 “멘탈을 더욱 단련해 어떤 상대도 이겨낼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

과천중 문준서







## ‘유뭇사’ 유도 없이 못 사는 사람들

### 2025 백제왕도 익산생활체육 전국유도대회에서 만난 사람들

전국의 생활체육 유도 동호인들이  
익산에 모였다. 8월 1일부터 3일까지  
사흘 동안 익산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5 백제왕도 익산 생활체육  
전국유도대회’에는 유치부부터  
초·중·고등부, 일반부까지 부문별  
선수들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쳤다.  
경기장을 찾은 이들에게는 승부 이상의  
이야기들이 있었다. 유도에 대한 특별한  
애정, 그리고 유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이들의 사연을 들어봤다.

글. 서호민 기자 사진. 대한유도회 제공

#### ‘지도자와 선수’ 1인 2역 소화한 유수민 사범

이번 대회에서는 각 부문에서 두각을 나타낸 선수들에게 우수선수상이 수여됐다. 그중 JNS 멀티유도집 유수민은 여자 일반부 -63kg급 우승을 차지하고, 특기인 발기술로 높은 점수를 받아 우수선수상까지 거머쥐었다.

유수민은 4경기 중 3경기를 한판 발기술로 마무리했다. 1회전에서 박완기(파이널유도멀티집 성북점)를 발다리 한판으로 제압했고, 2회전에서도 장예원(경운대)을 같은 기술로 꺾었다. 준결승에서는 최민서(JNS유도체육관 수지)를 안뒤축후리기 한판으로 눌렀고, 결승에서는 박지빈(안산유도체육관)을 상대로 손기술인 엮어치기 절반 두 개로 한판승하며 우승을 확정했다.

현재 JNS멀티유도집에서 사범으로 활동하는 그는 지도자로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동시에, 동호인 선수로 전국 무대에 꾸준히 나서며 기량을 증명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만세보령배, 명실상주배, 백제왕도배까지 3개 대회 연속 우승이라는 성과를 거두며 실력을 입증했다. 그는 “뿌듯한 결과라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서 다음 대회에서도 우승하고 싶다”며 “이번 대회 내내 고생한 JNS멀티유도집 식구들에게도 감사하다. 함께 꾸준히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 예고르

#### ‘태극마크를 목표로’ 코리안 드림 꿈꾸는

##### 카자흐스탄 출신 김 예고르 군

최근 유도계에서 다문화 선수를 보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해외에서 건너와 ‘코리안 드림’을 꿈꾸는 이들이 여럿 있다. 고국인 카자흐스탄에서 어머니의 나라 한국으로 건너와 유도선수로서 꿈을 펼치고 있는 김 예고르(15, 김재범유도관) 군도 그 중 한 명이다. 김 군은 이번 대회 남자중학부 -58kg급 결승에서 이승현(우석유도체육관)에 지도승을 거두며 금메달을 획득했다. 김 군은 “열심히 준비한 만큼 좋은 결과가 나와서 뿌듯하다. 작년 만세보령배 대회에 이어 두 번째 금메달을 따내 기쁘다”고 금메달을 획득한 소감을 전했다.

김 예고르 군은 카자흐스탄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이다. 그는 유도선수로서 꿈을 이루기 위해 1년 전, 한국을 찾았다. 먼저 카자흐스탄에서 유도를 시작했는데, 부모님의 좋은 피를 물려 받아 운동 능력과 힘이 타고난 덕분에 어릴 때부터 두각을 나타냈다. 김 군을 지도하고 있는 김재범유도관 김민지 관장은 “힘과 유연성이 좋고 신체 밸런스가 잘 갖춰져 있다”며 “사실 1년 전에 처음 왔을 때는 카자흐스탄에서 배운 유도에 익숙해 한국식 유도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식 유도에도 점차 적응해나가고 있다”고 김 군의 한국 유도 적응기를 들려줬다. 그러면서 김민지 관장은 “무엇보다 집중력이 뛰어나고, 받아들이는 자세도 좋다. 포기하지 않는 집념, 끈기도 돋보인다”고 김 군의 장점을 소개했다.

김 군이 가장 자신있어 하는 기술은 어깨로메치기다. 여기에 최근에는 허벅다리 걸기를 집중적으로 연습하는 등 새로운 기술 연마에도 한창이다. 그는 “어깨로메치기 기술로 상대를 잡고 빠르게 넘길 때 큰 쾌감을 느낀다”며 “한국에 온 이후로는 허벅다리 걸기가 맛있어서 많이 연습하고 있다. 김민지 관장님께서 섬세하게 지도해주신 덕분에 몸에 잘 흡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김재범 관장님께서도 늘 자신있게 기술을 메치라는 말로 자신감을 심어주신다”고 이야기했다.

아직은 한국말이 서툴지만, 한국에서 생활하는 게 즐거운 김 군이다. 그는 김재범유도관의 김재범 관장처럼 국가대표가 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 올림픽 금메달을 목에 거는 것이 한국에 온 목적이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한다. 한국인 어머니에게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고 싶은 것도 그 이유 중 하나다. 김 군은 어머니 이야기가 나오자 어눌한 발음이 아닌 또박또박 힘줘 자신의 뜻을 분명히 전달했다.

“김재범 관장님처럼 멋진 국가대표가 되고 싶다”라고 꿈을 밝힌 그는 “오랫동안 한국에서 유도를 하는 게 꿈이에요. 국가대표가 돼서 올림픽에 출전하고 싶어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내 어머니 목에 걸어드리고 싶어요. 어머니에게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고 싶어요. 더 열심히 할 거예요. 기대해주세요”라고 자신의 진심을 전했다. ☎



우수선수상 유수민





## 한국유도의 새 지평을 열다 2025 김천컵 전국유도대회

“한국유도의 새 지평을 열겠다”는 목표로 야심차게 출범한 김천컵 초대 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2025 김천컵 전국유도대회는 지난 8월 8일부터 13일까지 5박 6일간 김천체육관에서 열렸다. 가을이 시작되는 시점, 전국 각지의 유도인들이 김천에 모여 치열한 경기를 펼쳤다. 대회 기간 동안 주목할 만한 이슈들을 되짚어본다.

글: 서호민 기자 사진: 김천시체육회 제공

### 체급 올린 한주엽, 부상 딛고 화려한 복귀

국가대표 출신 한주엽(하이원유도)이 화려한 복귀를 알렸다. 한주엽은 남자 개인전 -100kg급 결승전에서 최도훈(부안군청)에 지도승을 따내며 우승했다. 한주엽은 지난 올림픽 이후 부상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냈지만, 꾸준한 재활과 훈련 끝에 체급을 올려 김천컵에 복귀했다. 복귀전은 성공적이었다. 체급을 올리고 난 뒤 첫 대회 출전에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며, 여전히 국가대표다운 면모를 보여줬다. 4전 전승으로 금메달을 획득한 한주엽은 “체급을 올리고 나서 첫 대회였기에 예상보다 더 힘든 승부였다. 아직 새로운 체급에 완전히 적응하지 못한 상태지만, 최선을 다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주엽은 원래 -90kg급에서 활약했으나, 발목 수술 후 증량이 늘면서 체급을 -100kg급으로 올렸다. 체급을 올린 이유는 예전부터 생각해왔던 부분이라고 했다. 다만, 바뀐 체급에 대한 적응은 당분간 계속 이어질 듯하다. 그는 “-90kg급과 -100kg급 무게 차이가 생각보다 크다. 상대 선수들의 힘이 상당히 강하다. 근력과 체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기술을 연마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특히 장기인 업어치기 기술을 계속 가다듬는 한편, 발기술을 더 연마해야 할 것 같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 김태영, 홈그라운드에서 우승 달성

김천대 경찰소방학과 김태영은 안방에서 빛나는 활약을 펼쳤다. 그는 남자 +100kg급 결승에서 백민찬(대구과학기술대)을 상대로 발뒤축결기 한판으로 승리하며 3관왕에 올랐다. 김태영은 지난 2024 제주컵 대회와 2005년 청풍기 대회에서 1위에 오른 데 이어, 이번 김천컵에서도 우승을 차지하며 상생세를 이어나갔다.

김태영은 “1위를 유지할 수 있게 아낌없이 조언하고, 지도해 주신 양희철 교수님과 박창용 감독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훈련하여 국가대표라는 목표를 이루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 포항시청-순천시청, 단체전 강팀다웠다

남자 일반부 단체전에서 포항시청은 유도 남자 -81kg급 세계랭킹 3위 이준환을 비롯해 배동현, 윤재구, 김민석, 채준희, 허준영(플레잉코치) 등이 출전해 부안군청(3-0), 부산시청(3-0)을 상대로 완승을 거두며 결승에 진출했다. 결승전에서 맞붙은 팀은 국내 최강을 자랑하는 한국마사회. 그러나 포항시청의 기세는 막강했다. 이준환, 배동현, 윤재구가 활약하며 3-2로 승리, 값진 금메달을 차지했다. 여자 일반부 단체전은 순천시청이 우승을 거머쥐었다. 순천시청은 뛰어난 팀워크와 안정된 기량을 바탕으로 결승에 올랐고, 결승에서 강호 포항시청을 상대로 3-2의 접전 끝에 승리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 김천컵 전국유도대회, 차세대 유도 스타들의 경쟁 무대

올해 처음 열린 김천컵 전국유도대회는 차세대 유도 유망주들의 실력을 겨루는 중요한 무대로 자리잡았다. 대한유도회가 주최하고, 경북도유도회와 김천시유도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1,300명의 선수와 200명의 임원 및 지도자 등이 함께하며 뜨거운 열기를 더했다. 대회는 남·녀 초등부부터 일반부까지 전 연령대가 참여해, 개인전과 단체전으로 진행됐다. 특히, 선수 가족과 지역 시민들이 함께한 응원전은 경기장의 열기를 더욱 뜨겁게 만들었다. 김천컵은 차세대 유도 유망주들이 실력을 다지는 중요한 무대로, 향후 대한민국 유도의 미래를 이끌어갈 스타들이 배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



# 박수범·이다인… 차세대 별 쏟아졌다

## 제41회 교보생명컵 꿈나무유도대회



7월 19일부터 21일까지 충남 아산시민체육관에서 제41회 교보생명컵 꿈나무 유도대회가 열렸다. 유도 유망주들의 등용문이자 전통과 권위를 자랑하는 이 무대에서 올해는 어떤 별들이 탄생했을까.

글: 서호민 기자 사진: 본인 제공

**리틀 김민종이 떴다!**  
**대구에서 온 유망주 박수범이 누구길래**

등직한 체구에 남다른 민첩성까지 얹어 ‘리틀 김민종’이라 불린 박수범(대구 지묘초·청춘유도관 연경점)이 교보생명컵을 흔들었다. 남초부 +66kg급에 출전한 그는 32강부터 결승까지 단 한 번의 흔들림도 없이 전 경기를 한판승으로 마무리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대구 출신 선수가 이 대회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것은 2019년 이후 6년 만이다.



“관장님과 연습한 대로 하니까 경기가 술술 풀렸다. 허벅다리걸기, 안다리후리기, 허리후리기, 오금대떨어뜨리기까지 자신 있는 기술을 모두 완벽히 구사했다.” 경기 직후 박수범은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대회를 돌아봤다.

현재 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 중인 그는 이미 전국대회에서 다섯 차례 연속 금메달을 따내며 차세대 유망주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익산 생활체육전국유도대회와 만세보령배를 제패했고, 올해 들어서는 사천우주항공컵과 상주 전국유도대회, 그리고 이번 교보생명컵까지 연이어 정상에 올랐다.

박수범이 유도과 인연을 맺은 건 초등학교 3학년 겨울이었다. 그는 “우연히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재밌어 보여 부모님을 졸라 도장에 다니기 시작했다. 관장님이 기초 기술부터 꼼꼼하게 지도해주셔서 머릿속에 쏙쏙 들어왔다. 그러면서 점점 흥미를 느끼게 됐다”고 했다.

하루 종일 체육관에서 땀을 흘린다는 그는 지금은 5학년 선수반을 이끄는 핵심 전력으로 자리 잡았다.

정용민 청춘유도관 연경점 관장은 “큰 체구에도 민첩성이 뛰어나고, 기술 이해도와 상황 판단력이 탁월하다. 순간적인 센스도 장점이다. 무엇보다 매사에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 참 좋다”며 제자를 칭찬했다. 이어 “기술에 대한 습득력이 좋기 때문에 앞으로도 다양

한 기술을 연구하며 성장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리틀 김민종’이라 불릴 만큼 김민종과 닮았지만, 박수범이 꼽은 롤 모델은 의외였다. 일본의 마루야마 조시로와 오노 쇼헤이. “두 선수의 메치기가 너무 멋져서 평소에 영상을 많이 보고 기술을 따라 해 본다. 국내에서는 김민종 형의 플레이를 많이 참고한다”고 밝혔다. 아직 초등학생이지만 타고난 체격, 빠른 습득력, 강인한 멘탈까지 두루 갖췄다. 지금의 성장세를 이어간다면 훗날 김민종처럼 국가대표로 발탁되는 것도 결코 먼 이야기가 아니다. “선수반에서 열심히 배우고 있다. 중·고등학교에 올라가 더 좋은 선수가 되고 싶다. 소년체전 금메달을 따고, 먼 미래에는 올림픽 금메달까지 차지하고 싶다.” 그의 눈빛에는 벌써 미래의 목표가 선명했다.

이밖에도 각 체급에서 유망주들의 활약이 빛났다. 남초부 -66kg급에서는 조유현(인천신현북초)이 결승에서 김민건(하남 청하초)을 허리후리기 한판으로 제압했고, -54kg급에서는 백지우(파주 메이 유도멀티집)가 정웅(용화초)을 업어치기 절반으로 누르며 금메달을 차지했다. 여초부 -52kg급 결승에서는 김현수(인천 서흥초)가 이보운(무곡초)에게 지도 두 개를 얻어내 우세승을 거두고 정상에 올랐다. 柔



남초부에서 박수범이 화제를 모았다면, 여초부에서는 동주초 3학년 이다인이 주인공이었다. -32kg급에 출전한 그는 고학년 선수들을 잇달아 꺾고 전 경기 한판승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앞서 제16회 청풍기 전국유도대회에서도 정상에 오른 그는 이번 대회 우승으로 두 대회 연속 금빛 메치기를 기록하며 ‘대형 꿈나무’로 떠올랐다.



다나카 미키(일본). 한국 여자유도 대표팀이 최근 새롭게 영입한 그의 이름은 국내 팬들에게도 낯설지 않다. 정성숙 감독을 보좌할 기술 코치이자 전력 분석관으로 합류한 그는 선수 시절 2010 도쿄 세계선수권대회 63kg급 준우승을 차지한 월드 클래스, 2012 파리 그랜드슬램 같은 체급 결승에서 정다운을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건 인물이다.

글. 송현일 기자 사진. 문복주 기자

## LA 올림픽 금메달을 위해, 한국 여자유도가 품은 천군만마

### ‘네와자 스페셜리스트’ 다나카 미키

2015년 매트를 떠난 뒤 그는 곧장 지도자의 길을 걸었다. 일본은 물론 해외 경험도 풍부하다. 2024 파리 하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디오라 켈디오로바(우즈베키스탄), 2021 헝가리 세계선수권대회 동메달리스트 게펜 프리모(이스라엘) 등이 대표적인 그의 제자.

하지만 그는 올해 돌연 한국행을 택했다. 정 감독과의 오랜 인연 때문이었다. “대학 시절 기술 교류차 한국을 방문했을 때 감독님과 처음 연을 맺었다. 자기 제자처럼 챙겨 주셔서 정말 감사했다”는 그와 정 감독은 지난해 파리올림픽 현장에서 재회했고, 점심 식사를 함께하며 “기회가 되면 꼭 한번 함께 일해 보자”는 기약 없는 약속을 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로 정 감독이 한국 여자유도 대표팀 사령탑에 오르게 되면서, 약속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지켜졌다. 지도자로서 국제무대

영향력을 이미 어느 정도 쌓아 올린 다나카 코치였지만, “정 감독님의 제안이었기에 한 치 고민 없이 한국으로 왔다”는 것이 그의 말이다.

대표팀에서 다나카 코치의 공식 직함은 전력 분석관이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내 선수들의 강점과 약점을 짚고, 해외 선수들의 경기를 분석해 맞춤 전략을 세우는 것이 그의 주 업무다. 하지만 역할은 이게 다가 아니다. 그는 자신을 ‘그라운드(Newaza·네와자) 기술 전담 코치’라고도 소개했다. 네와자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선수들에게 ‘누운 기술’을 전수 중이다. 네와자에 정통한 일본 출신답게 현역 시절 그는 세계 정상급 그레플러로 명성을 떨친

바 있다.

그런 다나카 코치는 “과거 한국이 스피드와 힘 모두에서 일본을 압도했다”고 했으나, 지도자의 눈으로 다시 본 한국 여자유도는 다소 냉정했다. “힘은 여전하지만, 속도는 예전보다 많이 떨어졌다”는 것이다. 이번 아니라 그는 “한국은 아직 세대교체가 끝나지 않아 선수들의 국제대회 경험이 다른 나라에 부족한 편”이라고도 분석했다.

다만 다나카 코치는 “지금 한국 선수들의 재능은 매우 뛰어나다. 특히 김하윤, 허미미, 이현지 등은 잠재력이 아직 100% 발휘되지 않은 상태인데도 세계 최고 수준의 기량을 갖고 있다”며 젊은 선수들의 발전 가능성에 큰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 여자유도의 색깔도 분명하게 짚었다. 순간적인 메치기 파워, 직선적인 공격, 그리고 변수를 만들어 내는 힘은 오직 한국 여자유도만이 가진 매력이란 것이다. 일본이 탄탄한 기본기를 앞세워 안정적 인 경기를 추구한다면, 한국은 예측 불가의 폭발력으로 판을 흔든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 한국 여자유도의 최대 약점?

##### “잡기 싸움 패턴 단조롭다”

화제는 자연스럽게 ‘차세대 주자’들로 이어졌다. 다나카 코치는 김하윤과 이현지 얘기에 화색을 보이며 “두 명 다 최중량급임에도 로프를 탈 만큼 신체 능력이 뛰어나다”며 감탄했고, 허미미에게는 “밸런스가 좋아 약점을 찾기 힘들다”고 엄지를 올렸다. 이번 아니라 전력 분석관다운 날카로운 평가도 함께 곁들였는데, 그는 김하윤이 “자기 주도적인 훈련 태도가 다소 부족하다”면서,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김하윤은 이미 세계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이다. 그런데 스스로는 아직 자신을 ‘유망주’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알을 깨고 나오려면 스스로가 곧 본인의 선생님이 돼야 한다. 남에게 조언을 구하기보다 혼자 해답을 찾으려는 시도를 더 많이 해봐야 하는 단계”라고 했고, 또 허미미는 “빠어난 기량을 갖췄지만, 경기 운영에서 미숙한 면이 있다. 국제무대에서 단순히 경험을 쌓는 데 그치지 말고 자신의 플레이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한다”고 내다봤다. 고등학생인 이현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마음이 이끄는 대로, 이러저리 부딪히며 시행착오를



겪어봐야 할 시점”이라며 말을 아꼈지만, 세 명 모두 “당장 다음 올림픽에서 챔피언이 돼도 이상하지 않을 재능”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새로운 룰 변화, 유효(Yuko)의 부활과 관련해선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다나카 코치는 “유효의 재도입으로 선수들이 보다 공격적인 운영을 가지면서 경기가 더 역동적으로 변했다. 체력이 관건이 된 셈”이라며, 이는 “세계적인 체력 수준을 보유한 한국 선수들에게 유리한 변화”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아직 넘어서야 할 벽도 있다. 다나카 코치는 한국 여자유도의 구조적인 약점으로 단조로운 경기 운영과 부족한 잡기 싸움을 꼽았다. “한국 여자유도는 힘과 스피드, 체력 모두 세계적이다. 기술 하나하나의 완성도 또한 높다. 하지만 경기 운영의 다양함이 떨어진다. 특히 잡기 싸움 패턴이 너무 단조롭다. 잡기 싸움에서 약점을 노출하다 보니 분명 경기를 주도하고도 남을 기량인데 이상하게 끌려다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잡기 능력만 보아도 단숨에 성적이 좋아질 것”이라는 그의 진단은 뼈아프지만 정확했다. 한국 여자유도가 나아가야 할 길도 물었다. 국내 선수들이 국제무대 경쟁력을 좀 더 끌어올리기 위해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다나카 코치는 망설임 없이 “국제대회 경험을 늘려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지금 한국 선수들은 실력에 비해 국제대회 성적이 들쭉날쭉한 면이 있다. 해외에서 경기를 치르는 게 아직 익숙하지 않은 것 같다. 냉정하게 따졌을 때 지금 한국 선수들의 국제무대 경험은 같은 나이대의 일본 선수들보다 훨씬 적은 편”이라면, “젊은 선수들이 국제대회를 최대한 많이 경험하고 시야를 넓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나중에 큰 무대에서 제 기량을 발휘할 수 있다”고 했다.

어느덧 마지막 질문. 한국과 일본 선수가 올림픽 결승에서 맞붙는다면 누구를 응원할 것 같냐는 물음에 다나카 코치는 미소를 보였다. 그는 “당연히 한국 선수다. 지도자라면 누구나 자신이 가르친 제자가 챔피언이 되길 원한다”며 “감독님과 함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를 배출하는 것이 지금 나의 가장 큰 목표이자 사명”이라고 힘줘 말했다. 🌸



## 끈끈한 응집력의 결실

### 첫 질서상 품은 JNS 유도멀티짐을 찾다

올해 처음 제정된 ‘질서상’의 영광은 JNS 유도멀티짐에 돌아갔다. 지난 8월 1일부터 3일까지 전북 익산에서 열린 2025 백제왕도 익산 생활체육 전국유도대회에서 JNS 유도멀티짐은 경기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질서정연한 태도를 보여 대회 첫 ‘질서상’ 수상팀이라는 뜻깊은 기록을 남겼다. 참가팀 중 단 한 팀만 받는 상이어서 그 의미는 더욱 컸다. 대회를 마친 뒤, JNS 유도멀티짐을 이끄는 박윤기 관장을 만나 수상의 뒷이야기와 생활체육 유도의 미래에 대한 그의 생각을 들었다.

글. 서호민 기자 사진. JNS 유도집 제공



### 끈끈함과 형제애, 다섯 지점, 하나로 뭉치다

“시상식에서 우리 이름이 호명되는 순간 깜짝 놀랐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수상이었기 때문이다. 참가 팀 중 유일하게 받는 상이라 더욱 값지고, 개인상이나 단체상보다 훨씬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감사하다.” 박윤기 관장은 웃으며 소감을 전했다.

국가대표 출신인 그는 2019년 용인에 첫 유도관 ‘JNS 유도멀티짐’을 개관하며 엘리트 지도자에서 생활체육 지도자로 새 길을 열었다. 7년이 흐른 지금, 용인 본점을 비롯해 수원, 수지, 오산, 평택까지 총 다섯 개 지점을 둔 탄탄한 유도관으로 성장했다. 지점은 지역별로 흩어져 있지만, 대회장에서는 다섯 지점 선수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친다.

박 관장은 “전국 대회에 나가면 다섯 지점 선수들이 서로 끝까지 응원하며 결속력을 보여준다. 내 경기가 끝나도 돌아가지 않고 끝까지 목청껏 응원하는 모습이 JNS 유도집만의 강점”이라고 자랑했다.

이번 질서상 수상 역시 이러한 지도자들의 헌신과 팀워크 덕분이라고 덧붙였다. “용인점 김원모·유수민 사범, 평택점 강다영·김지호 사범, 수원점 김락용 사범 등 모두 책임감을 갖고 아이들을 지도한다. 그 헌신이 대회 외부에 좋은 이미지로 전해진 것 같아 고맙다”라고 공을 돌렸다.

### 1명이라도 더, 유도를 좋아하게

개원 7년 차인 JNS 유도멀티짐은 현재 300여 명의 학생들에게 유도를 가르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체계적인 훈련 프로그램으로 내실을 다지고, 외부적으로는 전국 각지 대회에 꾸준히 참가하며 실전 경험을 쌓는다.

박 관장은 “입시반, 선수반, 취미반으로 수업을 나누고, 특히 선수반과 입시반 아이들은 대회 참가를 통해 실전 감각을 키우도록 독려한다”며 “2023년에는 여러 사정으로 단체전에 참가하지 못했지만, 올해 말 열리는 전국 대회에서는 다시 팀을 꾸려 출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생활체육 유도의 저변 확대는 박 관장이 평소




JNS 유도멀티짐 박윤기 관장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다. 최근 대회 현장에서 느낀 열기와 변화를 생생하게 전하며, 목소리에도 열정이 묻어났다. “생활체육 유도 인구가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게 늘었다. 저처럼 전문 선수 출신들이 유도관을 개관하면서 실력 향상과 함께 유도의 인기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그는 “아이들이 유도에 흥미를 느끼고 즐길 수 있도록 운동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변화시키는 게 나의 역할”이라며 “그렇기에 더 많은 사람들이 유도에 관심을 갖게 되고, 생활체육 유도의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관장은 앞으로도 ‘원석 발굴’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곳에서 가능성을 가진 유망주를 찾아 엘리트 선수로 키우는 것도 유도 발전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유도인의 한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해 맘 흘리겠다.”

그의 다짐에는 생활체육 유도 발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함께, 선수와 지도자가 한마음으로 성장해가는 모습이 깊이 담겨 있었다. 







## 꿈나무들이 빛은 유도의 내일

### 임희대 감독이 들려주는 ‘드림 업 캠프’ 후기!



뜨거운 여름, 작은 체구의 아이들이 올림픽파크텔에 모였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주최하는 2025 스포츠 꿈나무 드림-업(Dream-Up) 캠프에 참가하기 위해서였다. 아이들은 매트 위에서 부딪히고, 선배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잠시 ‘작은 국가대표’가 되었다. 그 2박 3일은 유도의 꿈과 함께 바른 인성과 진로를 키워가는 시간이었다. 인솔자로 동행한 임희대 꿈나무 대표팀 감독에게 이번 캠프의 뒷이야기를 들어봤다.

글. 서호민 기자 사진. 임희대 감독 제공

#### 드림-업 캠프는?

지난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2025 스포츠 꿈나무 드림-업(Dream-Up) 캠프가 열렸다. 매년 열리는 이 캠프에 유도 종목이 포함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대한유도회는 참가 기준의 공정성을 위해 전국대회 입상자 중에서 46명의 초등 선수를 뽑아 참가 기회를 제공했다.

꿈나무 선수들은 국가대표 출신 선배와의 만남, 미래 플래카드 제작, 올림픽 레거시 교육, 글로벌 매너 교육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체험하며 인성과 진로를 함께 설계했다.

특히 한국스포츠과학원과의 협업을 통해 체력 측정 프로그램도 진행돼 참가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유도 종목이 드림 업 캠프에 참여한 건 처음이다. 어떻게 캠프에 참여하게 됐나.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드림 업 캠프 참여 의사를 물어왔다. 아이들에게 좋은 경험이 될 거라 생각해 수락했다. 원래는 청소년 선수들을 대상으로 하려 했지만, 대회 일정이 겹쳐 상황이 여의치 않았다. 결국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캠프를 꾸렸다.

아이들의 반응은 어땠나.

다들 너무 만족스러워했고 캠프 참여도도 좋았다. 여러모로 뜻깊은 경험이었다. 캠프를 진행한 국민체육진흥공단 관계자도 ‘이렇게 호응이 좋은 종목은 처음 본다’고 얘기하더라. 캠프 마지막 날, 한 선생님은 아이들과 헤어질 때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서로 정이 깊이 들었다.

캠프 프로그램에는 유도 국가대표 선수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있었다.

유도 꿈나무들에게 용인대 체육대학은 로망이다. 국가대표 선수들을 많이 배출한 곳이기 때문이다. 용인대를 직접 찾아가 2시간 동안 국가대표 선수들과 굳히기와 메치기를 연습하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아이들은 마치 자신이

국가대표가 된 듯 자랑스러워했다. 부모님들도 크게 만족했다. 대표 선수들이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고 성심껏 함께해 준 덕분이다. 아이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됐을 것이다.

기억에 남는 또다른 프로그램이 있다면?

봄슬레이 국가대표 출신 강사들이 와서 아이들에게 멘토링을 해줬다. 비록 지금은 은퇴했고, 종목도 다르지만 운동선수로서 걸어온 경험을 나눠줬다. 운동선수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 강의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진솔한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아이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에게 참 의미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었다고 생각한다.

개별 체력 측정도 진행됐다. 어떤 의미가 있었나?

한국스포츠과학원과 협업해 국가대표 선수들이 받는 기초·전문 체력 측정을 그대로 실시했다. 초등학생들도 매년 겨울 기본 체력 검사를 받지만, 이렇게 세세한 검사는 처음이었을 거다. 근력·민첩성·유연성·지구력·파워 등 다양한 항목을 점검했고, 측정 데이터를 바탕으로 개인별 피드백까지 제공했다. 아이들은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확인하고, 앞으로 보완해 나갈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이번 캠프가 아이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길 바라나?

짧은 2박 3일이었지만 이런 캠프를 계속 경험해본다면 좋을 거란 생각이 들었다. 원래는 청소년 대상 캠프였지만, 초등학생들도 집중력과 호응도가 높았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도 매년 꼭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성장하는 아이들이 이런 캠프를 통해 금지와 자부심을 느끼고, 자신이 꿈나무 대표라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겼으면 한다. 이런 경험이 결국 더 많은 유망주를 키우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각 종목 꿈나무들에게 고르게 기회가 주어져, 미래 유망주 배출로 이어지길 바란다. ㉸





# “작지만 영리하고 용맹하다!”

## 여초부 -32kg급 최강자 이다인



나이는 어리고 체구는 작지만,  
매트 위에 서면 누구보다 용맹하다.  
제2의 허미미를 꿈꾸며 하루하루 매트 위에서  
땀을 쏟고 있는 청주동주초 3학년 이다인(10).  
유도선수 출신 아버지를 따라 도장에 드나들며  
하나씩 기술을 익혔고, 그 시간들이 쌓여 이제는  
전국 대회를 휩쓰는 최강 유망주로 성장했다.  
아버지와 함께 걸어온 성장 이야기,  
그리고 더 큰 무대를 향한 그의 꿈을 들어봤다.

글: 서호민 기자 사진: 본인 제공

이다인은 올해 여초부 -32kg급에서 사실상 ‘넘버원’이다. 교보생명컵, 청풍기, 추계연맹전까지 세 대회를 잇달아 휩쓸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단 한 판도 내주지 않았고, 모든 경기를 한판승으로 끝냈다. 키 큰 고학년 선수들까지 차례로 꺾어낸 ‘퍼펙트 승리’였다.

“올해 세 개 전국 대회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어 정말 기쁘다. 경기 전에는 떨리고 긴장도 됐지만, 선생님·코치님·부모님·친구들 덕분에 끝까지 힘을 낼 수 있었다.” 이다인은 말할 때마다 환하게 웃었다.

그를 지도하는 김영호 동주초 코치는 “어릴 때부터 다인이를 지켜봤다”며 “주특기인 엠퍼치기를 비롯해 손발을 자유롭게 쓰고, 다양한 기술을 펼칠 줄 아는 재목”이라고 평가했다.

이다인의 성장은 뛰어난 집중력과 강한 승부근성, 그리고 피나는 노력에서



비롯됐다. 김 코치는 “다인이가 여름방학 동안 메치기 기술을 집중적으로 연습했고, 엠퍼치기에 변형 기술을 더해 반복 훈련했다”며 “그런 꾸준한 노력이 지금의 결과로 이어졌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이다인의 유도 여정은 자연스럽게, 그러나 필연적으로 시작됐다. 그의 아버지 이성규 관장은 유도선수 출신으로, 현재 청주 백곰유도관을 운영하고 있다. 공인 5단 자격을 갖춘 그는 용인대를 졸업한 뒤 용인시청과 양평군청 실업팀에서 활약한 경력을 지녔다. 이다인은 다섯 살 무렵부터 아버지 도장에서 매트를 뒹굴며 유도를 몸으로 익혔다.

“아빠를 따라 처음 유도를 해봤는데 너무 재미있었다”는 이다인은 지금도 그때 느낀 즐거움 덕분에 매트 위에 서면 설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도는 이기는 재미가 있다. 기술이 제대로 들어가면 기분이 정말 좋다. 양팔 엠퍼치기를 가장 좋아한다. 경기 중 상대가 걸려 넘어가는 순간이 가장 짜릿하다. 새로운 기술로 이겼을 때도 뿌듯하다”고 유도의 매력을 전했다.

아버지의 영향 덕분인지, 이다인은 또래보다 유도에 대한 이해도와 기술 습득력이 빠르다.

김 코치는 “연습에서 배운 기술을 실전에서 과감하게 시도하려는 적극성이 돋보인다”며 “유도를 이해하는 속도도 빠르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와 함께 유도를 하며 기술을 일찍 익힌 것이 큰 도움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다인은 지금도 성장을 멈추지 않고 있다. 그가 꿈은 롤모델은 일본의 유도 스타, 아베 유타다. 그는 “아빠도 저도 유타 선수를 좋아한다. 자기 전에 늘 영상을 보고 자세를 따라 한다”며 “유타처럼 세계적인 선수가 되는 것이 제 꿈”이라고 말했다. 이어 “계속 이기고 싶다. 언젠가는 국가대표가 돼서 올림픽에 나가고, 아빠 목에 금메달을 걸어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매트 위 작은 소녀의 꿈은 이미 세계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

## “아빠 목에 올림픽 금메달 걸어줄거예요” 이성규·이다인 부녀의 꿈

이다인과 아버지 이성규 관장은 그야말로 ‘유도 가족’이다. 매트 위에서는 스승과 제자로, 매트 밖에서는 누구보다 끈끈한 부녀로 함께한다. 평소 이다인의 ‘아빠 사랑’은 각별하다. 인터뷰 하는 동안에도 내내 아버지에 대한 애정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아빠에게 유도를 배울 수 있다는 건 정말 특별한 일이다. 기술뿐 아니라 예의와 태도, 마음가짐까지 배울 수 있어서 더 좋다”며, “아빠 덕분에 유도에 대한 애정이 커졌고, 더 좋은 선수로 성장해 언젠가는 아빠 목에 금메달을 걸어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아버지 이성규 관장도 딸이 어린아이 시절 유도장 매트를 뒹굴던 모습을 떠올리며 세월을 실감했다. 그는 “다인이가 태어난 해에 도장을 차렸다. 사실상 도장에서 자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뛰어놀고 구르고 한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고 말했다. 잠시 회상에 잠긴 그는 “그때는 유도를 계속할 줄 몰랐는데, 이제는 초등학교에 입학해 전국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만큼 자란 걸 보면 참 대견하다”고 웃었다.

지도자로서 바라보는 딸의 성장도 남다르다. 이 관장은 선수 이다인의 기량뿐만 아니라 인성의 변화까지 함께 지켜보고 있다. 그는 “이번 추계 대회에서는 큰 기술뿐 아니라 발기술과 굳히기 기술이 많이 좋아졌다. 나날이 발전하는 모습이 기특하다”며 “무엇보다 유도를 하면서 성격도 밝아졌고, 예의도 한층 더 잘 갖추게 되었다. 물론 성적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사람으로 자라주는 게 더 큰 바람이다. 앞으로도 계속 응원하겠다”고 진심을 전했다.





# 유도를 더 가깝게

## 웃음과 땀을 담는 유튜브 ‘홍관장 TV’ 홍지환 관장을 만나다

청춘유도관 구미점을 운영하는 홍지환 관장은 약 1만 5천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다. 350여 명의 관원을 둔 유도관을 운영하며, 일상의 순간을 카메라에 담아 자신의 채널 ‘홍관장 TV’에 꾸준히 올리고 있다. 유튜브를 시작한 지도 어느덧 7년째. 그는 관원들과 함께하는 콘텐츠로 유도의 매력을 대중에게 전하고 있다.

글. 서호민 기자 사진. 본인 제공

### 유도관의 소소한 추억을 기록하다

2020년 5월 18일, ‘유도의 첫 걸음, 그야말로 걸음!’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왔다. 홍관장 TV의 첫 게시물이자, 유도 관련 유튜브 채널의 시작을 알린 순간이었다. 지금이야 유도 유튜브나 블로그가 제법 흔하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 공백을 가장 먼저 채운 사람이 바로 홍지환 관장이다.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를 묻자, 홍 관장은 이렇게 회상했다. “2019년에 유도관을 열었는데, 1년 만에 코로나19가 닥쳤다. 쉬는 기간 동안 뭐라도 해보자는 생각으로 내 이름을 걸고 채널을 개설했다. 처음엔 단순히 유도관 홍보 목적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유도관의 순간들이 추억이 되고 기록이 되더라. 유도를 그만둔 친구들도 예전 영상을 보며 그립다고, 보고 싶다고 연락을 주곤 한다.”

그의 말처럼 홍관장 TV는 유도관의 일상을 기록하는 브이로그가 중심이다. 초창기에는 ‘질보다는 양’에 집중해 일거수일투족을 빠짐없이 담았고, 쇼츠와 릴스 형태로 꾸준히 업로드하며 관심을 끌고자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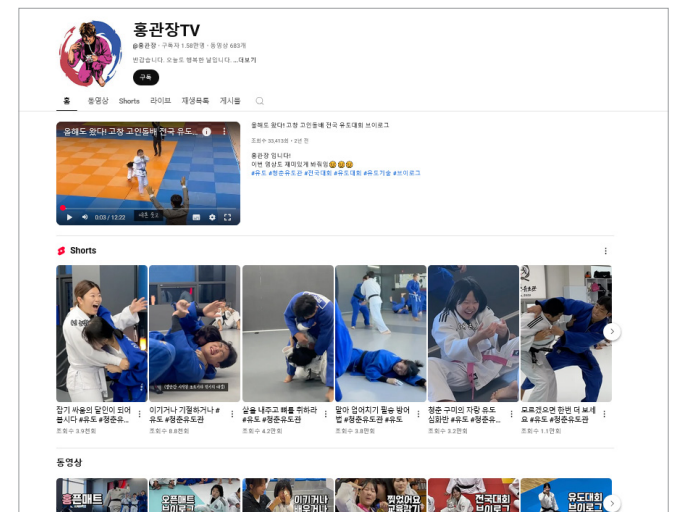
홍 관장은 “처음에는 유도관에서 일어나는 모든 순간을 담으려고 했다. 수업 중에도 재밌는 상황이 생길 것 같으면 바로 카메라를 들었다. 특히 대회에 나갈 때는 브이로그에 더 신경을 썼다. 타 지역으로 이동하다 보니 유도 장면만 보여주기보다는 수학여행 가는 느낌으로 밥 먹고, 노는 모습까지 담아 하나의 추억으로 남기려 했다”라고 덧붙였다.

### 관원들과 함께 만드는 유튜브

9월 10일 기준, 홍관장 TV에는 682개의 영상이 올라와 있다. 기억에 남는 콘텐츠를 묻자 홍지환 관장은 “모든 순간이 나에게서는 소중한 기억”이라고 답했다.

그렇다면 그가 강조하는 채널의 차별성은 무엇일까.

“요즘 유도 유튜브 채널이 정말 많다. 우리보다 콘텐츠를 더 잘 만드는 분들도 많다. 하지만 관원들이 이렇게 많이 등장하는 채널은 아마 우리밖에 없을 거다.(웃음) 영상을



찍을 때 늘 혼자가 아니라, 관원들과 함께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대구 계성고와 동의대를 거쳐 실업팀 양평군청에서 선수로 활약했던 홍 관장은 이제 유도관을 운영하며 생활체육 유도 인구를 늘리는 데 힘쓰고 있다. 유튜브마다 저마다의 특색이 있지만, 홍관장 TV는 특히 입문자들이 쉽고 꼼꼼하게 배울 수 있는 채널로 만들고 싶다는 것이 그의 바람이다. 홍 관장은 “유도는 굉장히 재미있는 운동이다. 하지만 일반 대중이 보기에는 거칠고 부상이 많은 종목으로 보여 진입 장벽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며 “그런 선입견을 무너뜨리기 위해 입문자들이 흥미를 느낄 만한 콘텐츠를 많이 올리고 있다. 앞으로도 거칠고 화려한 것보다는 소소한 재미를 줄 수 있는 콘텐츠를 기획하고 싶다. 생활체육에 더 집중하고 싶다”고 방향성을 전했다.

### 유도의 문턱을 낮추는 기록

그의 신조는 단순하다. “즐겁게, 그리고 안전하게 유도하기.”

인터뷰 말미에도 그는 이 말을 거듭 강조했다. 다치거나 아프면 즐겁게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유소년에게는 안전 속에서 즐거운 기억을 남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유튜버로서 목표도 분명하다.

“목표는 딱 하나다. 이런 채널을 통해 생활체육 유도 인구가 늘어난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꼭 홍관장 TV가 아니어도 괜찮다. 우리는 유도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더 많은 사람들이 유도에 다가올 수 있도록 계속 카메라에 담겠다.” 생활체육 유도를 향한 그의 진심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대목이었다. 🌻



장혜윤

김하은

RIVAL

## “올해 여고부 신인왕은 나야 나” 경기체고 장혜윤 vs 광주체고 김하은

여자 고교 유도에 시선을 사로잡는 새 얼굴이 등장했다.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다.  
주인공은 -70kg급의 장혜윤(경기체고)과  
+78kg급의 김하은(광주체고).  
둘은 입학 첫해부터 잇달아 시상대를 밟으며  
여고 유도의 새 흐름을 만들고 있다.

글: 송현일 기자 사진: 선수 제공

### 체전 우승 노리는 새내기 국가대표 핏줄은 못 속여

장혜윤은 8월 28일 충북 제천체육관에서 열린 제53회 추계 전국초·중·고 유도연맹전 여자 고등부 무제한급 결승에서 예서진(울산스포츠과학고)을 허벅다리걸기 한판승으로 꺾고 우승했다. 이로써 6월 제96회 YMCA 전국 유도대회, 제4회 양평몽양컵 전국유도대회에 이어 시즌 세 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며 차세대 국가대표로 발돋움을 예고했다.

장혜윤이 등장하기 전까지 여자 고등부 -70kg급은 사실상 신주은(광영여고)의 독무대였다. 신주은은 5월 제29회 전국청소년유도선수권대회에서 같은 체급 선수 중 고교생으로는 유일하게 입상(동메달)에 성공하며 ‘체급 절대 강자’ 이미지를 굳혔다. 그러나 5월 이후 고교 무대에 적응을 마친 장혜윤이 꾸준히 시상대를 밟으면서 흐름이 달라졌다. 양평몽양컵 8강전에서는 오히려 신주은이 장혜윤에게 유효승을 내주며 올해 첫 노메달을 기록하는 이변도 있었다.

장혜윤은 중학생 시절부터 남녀를 통틀어 동 나이대 최고 재능으로 꼽혀왔다. 170cm가 넘는 장신에 긴 팔다리까지 갖춰 신체 조건만 따지면 서양 선수를 못지않다는 평가다. 게다가 부모가 운영하는 도장에서 일찍부터 유도를 배운 덕분에 경력 대비 기술 완성도도 뛰어나다.

장혜윤은 ‘국가대표의 딸’로도 잘 알려져 있다. 어머니는 1995년 당시 고교생으로는 유일하게 태극마크를 단 선수이자 현재 대한유도회 국내 1급 심판으로 활동 중이 이 지미 심판. 장혜윤의 목표는 그런 어머니를 대신해 올림픽 메달을 목에 거는 것이다.

당장은 10월 전국체육대회(전국체전)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올해 전국체전은 고향 부산에서 열리는 만큼 각오가 남다르다. 정도운 경기체고 감독은 “대진운도 무난해 충분히 금메달을 노려볼 만하다”고 전망했다. 이번 대회 역시 장혜윤과 신주은의 양강 구도가 예상되는 가운데, 장혜윤이 신주은을 꺾고 ‘새내기의 반란’을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 고교 진학 후 뒤바뀐 평가

#### 김하은의 내일을 기대하라

장혜윤이 어린 시절부터 촉망받던 기대주였다면, 김하은의 경우는 조금 달랐다. 중학교 시절까지만 해도 체급 절

대 강자 최보민(경기체고)의 그림자에 가려 좀처럼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다.

그러나 고교 진학 첫해인 올해, 그는 지난해와 비교해 뚜렷한 기량 향상을 보이며 승승장구 중이다. 7월 9일 충북 청주체육관에서 열린 제16회 청풍기 전국유도대회 여자 고등부 +78kg급 결승에서는 인천체고 차은서를 지도승으로 꺾고 고교 무대 첫 우승을 차지했다.

우승 횟수는 아직 많지 않지만, 꾸준함에서는 오히려 장혜윤보다 앞선다는 평가다. 시즌 개막전인 2025 회장기 전국유도대회에서 은메달을 시작으로, 올해 출전한 대부분의 대회에서 시상대를 밟았다. 현재 이 체급 최강자인 도개고 이승진을 제외하면 국내에서는 사실상 적수가 없는 수준이다. 김하은은 ‘괴물 여고생’ 이현지(남녕고)와 함께 한국 여자 유도 최충량급의 부흥을 이끌 차세대 재목으로 꼽힌다.

최충량급답게 공격 성향이 강한 김하은은 허리기술과 발기술을 자유자재로 구사할 만큼 기본기가 탄탄하다. 상대 기술을 방어하는 능력도 뛰어나 경기를 안정적으로 풀어나가는 장점이 있다. 다만 타고난 운동신경에 비해 신체 조건이 다소 아쉽다. 김하은 역시 175cm로 작은 키는 아니지만, 180cm가 넘는 이승진이나 이현지와 비교하면 신장 차가 크다. 성인 무대에 오르기 전까지 장신 선수 공략법을 만들어내는 것이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다.

다가오는 전국체전은 김하은에게 그간의 성과를 증명할 무대이자 건문을 넓힐 중요한 기회다. 그는 “첫 체전이라 긴장되지만, 지금까지 준비한 것을 모두 보여주고 싶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번 체전에서 김하은이 장혜윤과 함께 ‘1학년 돌풍’을 일으킬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



**김하은**  
소속팀 광주체고  
생년월일 2009년 4월 23일  
출신학교 광주체중  
주특기 허리채기, 발다리후리기  
주요경력  
2025 청풍기 전국유도대회 여고부 +78kg급 우승  
2025 회장기 전국유도대회 여고부 +78kg급 준우승  
2025 용인대총장기 전국유도대회 여고부 +78kg급 준우승



**장혜윤**  
소속팀 경기체고  
생년월일 2009년 6월 14일  
출신학교 경기체중  
주특기 안다리후리기, 허리후리기  
주요경력  
2025 추계 전국초중고유도연맹전 여고부 무제한급 우승  
2025 YMCA 전국유도대회 여고부 -70kg급 우승  
2025 양평몽양컵 전국유도대회 여고부 -70kg급 우승



# 보다 화려하고 박진감 넘칠 LA,

## 2025 유도 룰 어떻게 바뀌었나

국제유도연맹(IJF)이 분주하다.

2028 LA 하계올림픽 예선 기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내년을 앞두고, 경기 규칙을 대대적으로 손질 중이다. 2월 파리 그랜드슬램과 6월 부다페스트 세계선수권에서는 바뀐 규정을 시험 적용했고, 앞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일부 수정 과정을 거쳐 내년 정식 도입될 예정이다. 변화의 방향은 분명하다. 보는 재미, 기술의 묘미, 박진감 넘치는 유도다.

글: 송현일 기자 사진: IJF



**1 유효 점수 부활**  
2016년을 끝으로 폐지됐던 유효가 올해부터 다시 점수로 인정된다. 득점 체계를 기존 한판-절반에서 한판-절반-유효로 한층 세분화한 것이다. 세 가지 점수 중 가장 얻기 쉬운 것이 유효다. 상대 신체 측면을 매트에 닿게 하거나 5초 이상 굳히기에 성공하면 유효를 얻는다. 경기 중 나온 유효는 계속 누적되지만, 여러 개를 얻어도 절반으로 상향되지는 않는다. 유도계에서는 “유효 부활로 선수들이 더 적극적으로 기술을 시도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 경기 박진감이 훨씬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2 머리 접촉 허용**  
선수 보호 차원에서 금지됐던 머리 접촉도 달라졌다. 공격자든 수비자든, 이제 머리가 매트에 닿아도 반칙이 아니다. 단, 유소년(Cadet) 경기에서는 예외 없이 전면 금지된다. 성장기 선수들의 부상을 막기 위함인데, 심판은 상황에 따라 시도만으로도 지도를 줄 수 있다. 이번 개정은 머리 사용을 권장하려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반칙패를 줄이려는 취지가 크다.

**3 그림 범위 확대**  
이제 도복 상의는 전부 잡을 수 있다. 소매 안쪽, 띠 아래 치맛단까지 허용됐다. 하지만 소극적 방어용으로 악용하면 지도다. 다리 그림도 일부 가능해졌다. 선 자세에서 공격자 또는 수비자가 상대 바지 안쪽 하단을 잡는 건 여전히 반칙이지만, 누운 자세라면 허용된다. 이외 서거나 누운 상황에서 손이나 팔로 상대 다리를 잡거나 걷는 동작은 여전히 지도 대상이다.



**4 맞잡기 30초 제한**  
잡기 싸움(Kumi-kata-맞잡기)에 시간 제한이 생겼다. 긍정적 진전(Positive Progression)이 있으면 최대 30초까지는 허용된다. 그러나 그 안에 유의미한 기술 시도가 없으면 두 선수 모두에게 지도가 선언된다. 일부 긍정적 진전이 있더라도 30초 안에 공격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면 소극적 운영으로 판단돼 지도를 받을 수 있다. 이 규정 도입으로 경기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5 베어허그 말아업어치기 추가**  
최근 국제대회에서 베어허그(Bear hug)를 구사하는 선수가 부쩍 늘었다. 서 있는 상태(Tachi-waza)에서 두 손으로 상대를 안거나 들어 메치는 동작이 올해부터 허용됐기 때문이다. 베어허그는 익히기 쉽고 실전성도 높아 앞으로 활용도가 커질 전망이다. 다만 손이나 팔이 맞닿아 동그라미를 그리는 형태라면 지도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양손을 사용하되, 팔과 팔은 서로 붙지 않고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최민호 안바울 등 국내 선수들이 즐겨 써 한국식 업어치기(Korean seoi-nage)로 불리던 말아업어치기도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부상 위험이 큰 기술인 만큼 유소년 경기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 6

## 기타 변경 사항

메치기 과정에서 부상 위험이 큰 꺾기 기술을 함께 시도하면 즉시 반칙패가 선언된다. 하지만 위험성이 작거나 수비자가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지도로 완화된다. 또 선 자세에서 메치기 과정 없이 곧바로 꺾기를 시도하는 경우 지도에 해당한다.

경기 구역 문제도 손질됐다. 경기 중 선수가 의도적으로 밖으로 나간 게 아니라면 심판은 지도 대신 ‘그쳐(Mate)’ 선언으로 경기를 중단할 수 있다.

## 기술 유도의 시대가 온다

앞으로도 세부 규정은 더 바뀔 수 있다. 방향은 모두 같다. 보는 재미가 있는 유도. IJF가 LA 올림픽을 앞두고 내건 핵심 기치다.

한국은 IJF의 이 같은 변화를 반기고 있다. 바뀐 규칙 대부분이 힘보다는 기술 유도 쪽에 힘을 실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한순남 대한유도회 상임심판은 이번 개정으로 “기술 유도의 시대가 다시 열리게 될 것”이라며 “체력과 섬세함을 두루 갖춘 한국 유도에는 큰 호재”라고 내다봤다. ㉠







## 세계랭킹 1위 10명 중 7명은

## 올림픽 우승에 실패했다

세계랭킹은 선수들의 최근 성적과 경쟁력을 보여주는 가장 객관적인 지표다. 그러나 올림픽 무대에서는 이 수치가 자주 무너진다. 최근 네 차례 올림픽(런던·리우·도쿄·파리)에서 열린 56개 체급 가운데 세계랭킹 1위가 금메달을 차지한 경우는 단 16번. 확률로는 28.6%에 불과했다. 다시 말해 10명 중 7명은 정상에 오르지 못했다는 뜻이다.

글 송현일 기자 사진. IJF

세계랭킹 1위는 대개 해당 체급에서 가장 꾸준히 성적을 낸 선수에게 돌아간다. 하지만 올림픽은 단판 토너먼트. 누적된 포인트가 아닌 단 하루, 단 몇 분의 승부로 성패가 갈리곤 한다.

프랑스 유도 영웅 테디 리네르(+100kg급)는 2020 도쿄올림픽에서 동메달에 그쳤고, 일본 여자 유도 전설 후쿠미 도모코(-48kg급)는 2012 런던올림픽 ‘노메달’이라는 충격적인 결과를 맞았다. 지난해 파리올림픽에선 같은 해 세계선수권대회 우승자 김민중(+100kg급)이 당시 세계랭킹 7위 리네르에게 금메달을 내주며 눈물을 쏟기도 했다. 세 명 모두 ‘세계랭킹 1위’ 자격으로 나선 대회였다. 그러나 올림픽이라는 무대 앞에서는 이 역시도 그저 숫자에 불과했다.

### 세계랭킹 2위의 입상 확률이 1위보다 높다고?

입상 확률 역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세계랭킹 1위가 메달권에 든 비율은 62.5%. 즉, 10명 중 4명은 시상대에도 오르지 못했다. 도쿄올림픽 -66kg급에서는 당시 세계랭킹 1위 마누엘 롬바르도(이탈리아)가 동메달 결정전에서 2위 안바울에게 무릎을 꿇었으나, 반대로 4위였던 아베 히후미(일본)는 시상대 가장 높은 곳까지 올랐다. 서로 랭킹과 순위가 뒤바뀐 것이다. 파리올림픽 당시 세계랭킹 3위였던 이준환이 동메달 결정전에서 같은 체급 최강자 마티아스 카세(독일)를 잡아낸 것 또한 이와 비슷한 사례다. 세계랭킹 1~4위로 범위를 넓히면 금메달 확률은 66.1%까지 오른다. 4명



중 1명은 정상에 선다는 계산이다. 세부적으로는 1위가 28.6%로 가장 높았지만, 4위의 우승 확률(14.3%)이 2위(12.5%)와 3위(10.7%)를 앞서는 등 반전 요소도 있었다. 입상 확률에서는 2위(69.6%)가 1위(62.5%)를 넘어서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높은 순위일수록 성적도 좋을 것’이라는 기대는 올림픽 앞에서 소용없다.

### 세계랭킹 29위도 챔피언이 될 수 있다

더 흥미로운 점은 다크호스의 약진이다. 최근 올림픽에서 금메달의 33.9%는 세계랭킹 5위 이하 선수들이 차지했다. 3번 중 1번은 ‘언더독’이 역사를 바꾼 셈이다. 2016 리우올림픽 -66kg급에서 세계랭킹 26위에 불과했던 파비오 바실레(이탈리아)는 기적 같은 금메달로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기적의 희생양은 공교롭게도 안바울이었다). 무명에 가까운 그는 올림픽 이후 단숨에 스타로 떠올랐다. 또 런던올림픽 -60kg급에서는 커리어라고 2011년 세계선수권대회 동메달이 전부였던 아르센 갈스티안(러시아)이 결승까지 치고 올라가 금메달을 목에 걸기도 했다. 이처럼 올림픽은 랭킹 그 자체보다 누가 당일 최고의 집중력을 발휘하느냐가 훨씬 중요하다.

### 리우의 역설, 그리고 런던의 반전

한국 유도도 랭킹의 허상 앞에서 뼈아픈 경험을 했다. 리우올림픽 당시 대

표팀은 -60kg 김원진, -66kg 안바울, -73kg 안창림 등 3개 체급에서 세계랭킹 1위를 보유했다. 대회 전 “금메달 2~3개는 무난하다”는 낙관론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결과는 기대와 달랐다. 금메달은커녕 은메달 1개(안바울)에 그쳤고, 김원진과 안창림은 조기 탈락했다. 또 세계랭킹 1~4위로 출전한 한국 선수들의 올림픽 입상 확률은 69.2%로, 세계 평균(58.0%)을 크게 웃돌았지만 금메달 확률은 7.7%에 불과했다. ‘결정력 부족’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반대로 ‘언더독의 반란’도 있었다. 2012 런던올림픽 -90kg급에서 세계랭킹 15위였던 송대남은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금메달을 차지했다. 투혼과 집중력으로 정상에 오른 그는 여전히 한국 유도의 상징적 반전 드라마로 남아 있다.

### 전문가들이 보는 랭킹의 함정

왜 세계랭킹은 올림픽에서 자주 무너질까. 전문가들은 크게 세 가지 이유를 꼽는다.


첫째, 대진 운이다. 단판 토너먼트에서는 초반에 까다로운 상대를 만나면 상위 랭커라도 탈락할 수 있다. 유도는 선수와 선수 간 ‘상대성’이 존재하는 종목이기 때문이다.

둘째, 컨디션이다. 랭킹은 평균을 반영하지만, 올림픽은 단 하루의 ‘최고치’를 요구한다. 정상급 기량을 가진 선수들일수록 종이 한 장 차이로 승부가 갈리기 마련이다.

셋째, 전략적 랭킹 조절이다. 황희태 한국 남자 대표팀 감독은 “선수들이 까다로운 상대를 피하려고 랭킹을 일부러 조절하기도 하고, 출전이 확정된 베테랑은 랭킹 경쟁보다 몸 관리에 집중한다”고 설명한다. 이런 요인들이 합쳐지며 메달은 종종 ‘제 주인’이 아닌 다른 이의 품에 안기게 되는 것이다.

### 숫자 그 이상의 무대, 올림픽

세계랭킹은 꾸준한 경쟁력을 입증하는 중요한 지표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올림픽에서의 금빛 엔딩을 보장할 수 없다. 결국 승부를 가르는 것은 매트 위에서의 단 하루, 단 한 순간의 집중력과 흐름이다. 그래서 올림픽은 언제나 이변과 반전, 드라마를 낳는다. 세계랭킹은 어디까지나 참고 자료일 뿐, 올림픽의 주인공은 결국 매트 위에서 결정된다.

참가자 모두가 스스로를 극한까지 몰아붙이기에, 누구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전쟁터. 그곳이 바로 올림픽이다. 



제39대 집행부, 제2차 이사회 개최



대한유도회 제39대 집행부 제2차 이사회가 8월 25일 오전 11시, 올림픽회관 신관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이사회에는 재직 이사 38명 중 29명이 참석했다. 이사회에서는 3월 8일부터 8월 24일까지 진행된 서면 결의 결과, 분과위원회 회의 결과, 대회 및 훈련을 포함한 기타 사업 결과 등 주요 사항이 보고되었으며, 모든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되었다. 심의 안건으로는 각종 규정 재·개정(안), 2025년도 사업 및 예산 신규 편성, 전국대회 임원 수당 인상(안), 공인심의 위원회 위원 위촉, 각종 제증명 발급 수수료 인상(안) 등이 있었으며, 모두 원안대로 승인되었다.

2025년도 제3차 정기승단심사 실시

본회 2025년도 제3차 정기승단심사가 8월 25일에 실시됐다. 이번 승단심사에서는 7단 5명을 포함해 총 2,952명이 합격했다.

승단인원							
7단	5명	4단	44명	초단	1,087명	소년3단	20명
6단	5명	3단	109명			소년2단	219명
5단	10명	2단	495명			소년초단	958명

2025년도 체육지도자 실기·구술시험 실시

2025년도 체육지도자 실기·구술 검정시험이 7월 1일부터 3일까지 사흘간 충북, 청주 유도회관에서 실시됐다. 이번 실기·구술 검정시험에는 530명이 응시해 384명이 합격했다.

합격인원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101명	유소년스포츠지도사	78명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2명	노인스포츠지도사	55명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148명		

후보선수 국외 전지훈련, 체코에서 진행

2025년도 후보선수 국외전지훈련이 7월 2일부터 11일까지 체코에서 진행됐다. 이번 훈련에는 지도자 3명과 선수 14명, 총 17명이 참가했다. 선수단은 7월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열린 2025 유러피언컵 프라하 국제 청소년 유도대회에 출전했으며, 이어 7월 7일부터 9일까지 남부르크에서 합동훈련캠프를 실시했다.

참가자명단	
전임감독(1명)	김한태(후보선수 전임지도자)
전문지도자(2명)	현후익(남녕고), 한기쁨(서울체고)
선수(14명)	오상우(용인대), 이준현(용인대), 전민형(신철원고), 고호령(한국체대), 최재민(용인대), 박세민(용인대), 김민준(용인대), 유슬기(선문대), 신유미(광영여고), 박채령(인천체고), 양지연(광영여고), 고미소(선문대), 이채민(인천체고), 이혜빈(용인대)



2025 한일우수청소년 스포츠교류 초청사업 실시

2025년도 한일우수청소년 스포츠교류 초청사업이 7월 14일부터 19일까지 5박 6일간 진천선수촌에서 실시됐다. 이번 훈련에는 우리나라 후보선수 27명(지도자 3명, 선수 24명)이 참가했으며, 초청된 일본 청소년 선수들과 함께 합동훈련을 진행했다.

참가자명단	
전임감독(1명)	김한태(후보선수 전임지도자)
전문지도자(2명)	현후익(남녕고), 김주연(선문대)
선수(24명)	손예원(서울체고), 이유진(경기체고), 유슬기(영서고), 유하늘(영서고), 신유미(광영여고), 백지호(주산산업고), 이소윤(도개고), 배슬비(금곡고), 박채령(인천체고), 김민지(경기체고), 이채경(서울체고), 고은아(용인대), 양지연(광영여고), 송다영(도개고), 홍다인(인천체고), 정예담(용인대), 강재형(충남체고), 고미소(남녕고), 김고은(남녕고), 강수민(광영여고), 이승주(도개고), 이채민(인천체고), 이혜빈(용인대), 이승진(도개고)



2025 한일우수청소년 7.14.-19. 스포츠교류 초청사업 실시

2025년도 하계 전국 심판·지도자 강습회 실시

2025년도 하계 전국 심판 및 지도자 강습회가 7월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 전북 익산실내체육관에서 열렸다. 이번 강습회에는 207명이 수료했다.

강습회 수료자명단-86명	
서울(31명)	이정원, 원유철, 신영균, 김덕영, 최용배, 박경준, 이종록, 이상진, 지승엽, 신재천, 서혜경, 류근, 최재두, 채승원, 성욱진, 최주필, 정해진, 최성호, 오재우, 최민협, 이영록, 소미, 이성준, 정수덕, 박명우, 장지영, 장대호, 이규정, 이성준, 이진석, 김수홍
부산(4명)	전영환, 안치국, 김현성, 서준호
대구(3명)	황상훈, 박종운, 유지연
인천(1명)	김홍선
광주(5명)	배중용, 김대현, 조미연, 김광훈, 최은현
대전(3명)	김백술, 허재영, 정한광
울산(1명)	하홍남
세종(4명)	유동훈, 이대성, 임호준, 김민지
경기(12명)	이상봉, 백경열, 송일훈, 정경일, 서제승, 양다솜, 김찬우, 원지훈, 안상곤, 최호정, 원지우, 최용석
강원(5명)	김건희, 김성익, 천주연, 지윤서, 이기태
충남(3명)	김은영, 문소연, 이은혜
충북(2명)	고택현, 원철규
전남(3명)	김성진, 박현수, 이상현
전북(2명)	문용범, 신윤명
경남(3명)	허교영, 조영진, 김이한
경북(3명)	고용희, 박지원, 김효준
제주(1명)	강종건

(1급 심판 합격자명단) 총 36명
김이한, 김성민, 장지영, 서준호, 문소연, 박종운, 김효준, 고택현, 박현수, 원철규, 지윤서, 김보은, 이성준, 홍은영, 김영호, 문용범, 박지원, 최은현, 소미, 임호준, 정한광, 강종건, 김현성, 이영록, 천주연, 서제승, 김홍선, 노소진, 전영환, 유동훈, 양다솜, 이기태, 김은영, 황상훈, 김성진, 이은혜

(1급 지도자 합격자명단) 총 80명
박훈식, 김선중, 이규정, 원철규, 김태현, 소미, 이승진, 임호준, 원지훈, 박종원, 김현성, 하지수, 정영주, 이승규, 유대영, 최은현, 임동규, 이성준, 서준호, 김효준, 고택현, 최재두, 성규진, 김태현(95), 최호정, 성욱진, 정호재, 박지원, 이천동, 원지우, 신수환, 양다솜, 문소연, 김주호, 고용희, 한정희, 이진석, 이경일, 강원민, 김중부, 지윤서, 이승준, 김시웅, 김은영, 이은혜, 김찬우, 김진상, 김이한, 김원모, 최주필, 박윤산, 김성민, 김덕유, 김건희, 최민현, 천주연, 이규영, 김형진, 권희창, 문용범, 김경덕, 강동건, 조미연, 황태원, 이동준, 김지윤, 하홍남, 이상민, 박경준, 이동현, 김성익, 최승호, 유지연, 정경일, 장대호, 조재현, 이기태, 김홍선, 한성만, 최재열

(1급 KATA심판 합격자명단-3명)
정수덕, 허재영, 안상곤



2025년도 후보선수 이하 우수선수 합숙훈련 실시

2025년도 후보선수 및 이하 우수선수 합숙훈련이 아래와 같이 실시되었다.

이번 훈련에서는 기술 및 체력 강화와 함께 인권교육, 도핑 방지 교육도 병행하여 진행됐다.

후보선수 하계합숙훈련  
훈련기간: 2025년7월25일~8월7일(13박14일)  
훈련장소: 경북 구미북합스포트센터

지도자(7명)		김현태(후보선수 이하 전임지도자) 김태윤(해동고 감독) 현후익(남녕고 코치) 홍승한(한국체대 감독) 한기쁨(서울체고 코치) 김주연(선문대 감독) 오세희(트레이너)
선수 (45명)	남자 22명	-55kg 조연우(경인고) 이은강(한국체대) -60kg 오상우(용인대) 윤주승(용인대) 염형준(경기대) -66kg 전민성(신철원고) 이준현(용인대) 이재준(남녕고) -73kg 전민형(신철원고) 고지운(한국체대) -81kg 박성현(용인대) 고호령(한국체대) 허정재(용인대) -90kg 최재민(용인대) 고호령(한국체대) 허정재(용인대) 심재윤(주산산업고) -100kg 박세민(용인대) 하은강(용인대) 임강호(한국체대) +100kg 김민준(용인대)
	여자 23명	-45kg 손예원(서울체고) 이우진(한국체대) 유슬기(선문대) 유하늘(영서고) -52kg 신유미(광영여고) 백지호(주산산업고) 이소윤(도개고) 배슬비(금곡고) -57kg 박채령(인천체고) 김민지(한국체대) 이채경(서울체고) -63kg 고은아(용인대) 양지언(광영여고) 송다영(한국체대) 홍다인(인천체고) -70kg 정예담(용인대) 강재형(충남체고) 고미소(선문대) -78kg 김고은(남녕고) 강수민(광영여고) 이송주(도개고) 이채민(인천체고) +78kg 이승진(도개고)



청소년대표 (1차)합숙훈련  
훈련기간: 2025년 7월 26일~8월 7일(11박12일)  
훈련장소: 경북 구미북합스포트센터

지도자(8명)		김대봉(청소년대표 전담지도자) 조상훈(온양중 코치) 성문기(영양중 코치) 최혁진(제주도체육회 코치) 정다운(제주유도회관 코치) 소미(서울체중 코치) 김민영(철원여중 코치) 김시진(트레이너)
선수 (38명)	남자 26명	-45kg 이준(부평서중) 윤준혁(보성중) 김보민(진랑중) 김주원(도개중) 이산(해동중) -51kg 이현(부평서중) 조부건(사북중) 최연성(청라중) -55kg 노윤(청라중) 김유찬(부평서중) 문장원(플라이유도센터) -60kg 송세현(대전리중) 박현우(경민중) 이동재(서울체육중) -66kg 정의성(신현중) 문준서(보성중) 김서준(보성중) -73kg 박지호(보성중) 김세윤(송도중) -81kg 양태민(보성중) 최아식(무극중) 양준훈(아라중) -90kg 문준서(과천중) 김재후(보성중) 이원준(옥천중) +90kg 김형주(태장중)
	여자 22명	-42kg 강민하(중앙중) 손민서(옥천여중) 김슬아(사북중) -45kg 박가은(원당중) 조은설(사북중) -48kg 안혜원(중앙중) 이보윤(신현여중) 정아연(서울체중) -52kg 권세현(서울체중) 조서희(서울체중) 김예빈(신현여중) -57kg 백서영(중앙중) 손예슬(용운중) 김소연(울산스포츠과학중) -63kg 곽유주(플라이유도센터) 이혜원(안락중) -70kg 이서현(플라이유도센터) 정아인(도개중) 선애스더(정북정무스포츠클럽) +70kg 이서하(용운중) 임수경(금곡중) 심지민(연무여중)



꿈나무선수 하계합숙훈련  
훈련기간: 2025년 7월 27일~8월 9일(13박14일)  
훈련장소: 강원 철원유도회관

지도자(8명)		임희대(꿈나무선수 전담지도자) 강명덕(제주시유도회) 관성훈(신홍초) 이성균(문선초) 신슬기(가남초) 조아라(신철원초) 홍진주(홍덕초) 조국(세이코츠토타케아슬루션)
선수 (38명)	남자 21명	-36kg 이의리(송남초) 하정후(김재범체육관) 배서준(사북초) -42kg 정수현(사북초) 조윤은(송중초) 차연우(용화초) -48kg 최우현(송중초) 홍상운(동남초) 민서준(YK유도클럽) -54kg 박도윤(사북초) 정웅(용화초) 김지후(에스유도클럽) -60kg 이준수(사북초) 유주원(용암초) 김도윤(GP유도멀티집) -66kg 김가은(명천초) 최만우(천동초) 이우주(논산시유도회) +66kg 최승우(양주고음유도단) 최찬영(부안초) 원동휘(송백유도단)
	여자 17명	-36kg 문서아(송중초) 김노을(철원초) -40kg 백서진(송중초) 안소정(홍천유도스쿨) 강예빈(한라유도클럽) -44kg 강서은(동남초) 박지유(사북초) 이하늘(철원초) -48kg 윤경화(신철원초) 이보윤(무극초) 권도연(광주거점스포츠클럽) 오유림(명덕초) -52kg 이예서(내성초) 정아름(동주초) 김현수(인천서흥초) +52kg 이보은(김해활천초) 정예은(도천초) -57kg 백서영(중앙중) 손예슬(용운중) 김소연(울산스포츠과학중) -63kg 곽유주(플라이유도센터) 이혜원(안락중) -70kg 이서현(플라이유도센터) 정아인(도개중) 선애스더(정북정무스포츠클럽) +70kg 이서하(용운중) 임수경(금곡중) 심지민(연무여중)

2025 경찰청장기 전국유도대회

2025 경찰청장기 전국유도대회가 9월7일, 강원특별자치도 철원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대회 체급별 우승자에게는 순경 특채 기회가 주어지게 된다.

체급별 우승자 명단	
남자	여자
-60kg 오지원(세한대)	-48kg 배승주(가호유도단)
-66kg 박진영(영남대)	-52kg 박정현(용인대강동유도단)
-73kg 최민서(EZ유도관(성남))	-57kg 김한결(민앤마이노멀티집)
-81kg 김민수(부산광역시청)	-63kg 한희주(대구광역시체육회)
-90kg 박상훈(경기대)	-70kg 유예진(경남도청)
-100kg 김도훈(남양주시청)	-78kg 채윤지(안산시청)
+100kg 이현용(광주광역시체육회)	+78kg 조은나라(제주특별자치도청)

유도인 동정

이소연·김주유·이정은 국제 심판시험 합격

이소연(대한유도회 상임심판), 김주유(과천시, 과천중 코치), 이정은(대구 남산초 코치) 심판이 8월18일, 19일 요르단 암만에서 양일간 진행된 국제심판시험에 응시해 합격했다.

합격자 명단	
International	이소연
Continental	김주유, 이정은

황희태 남자 국가대표팀 감독, 대한체육회 창립 105주년 기념 체육유공자 표창 수상



황희태 남자 국가대표팀 감독이 대한체육회 창립 105주년 기념 체육유공자 포상에서 전문체육진흥부문 국가대표선수 육성 부문 수상자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황희태 감독은 2022년부터 2025년 현재까지 남자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재임하면서 탁월한 지도력과 헌신으로 한국 남자유도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이끈 공로를 인정받아 ‘국가대표 선수 육성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으며, 시상식은 지난 7월 15일 태릉선수촌에서 시상식이 거행됐다.

대한유도회 각종 제증명 발급 수수료 변경 안내

2021년 1월부터 적용해오던 본회 '각종 제증명 확인서 및 단증 재발급 수수료'가 지난 4년간의 우편요금 인상 및 물가상승으로 인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1. 각종 확인서  
- 팩스 발급 시 기존 1,000원 → 2,000원(발급수수료 1,000원)  
- 우편 발급 시 기존 4,000원 → 6,000원(발급수수료 1,000원, 우편수수료 1,000원)
- 2. 대단증 및 각종 자격증 재발급  
- 팩스 발급 시 기존 2,000원 → 3,000원(발급수수료 1,000원)  
- 우편 발급 시 기존 5,000원 → 7,000원(발급수수료 1,000원, 우편수수료 1,000원)
- 3. 선수증 재발급  
- 방문 수령 시 기존 3,000원 → 5,000원  
- 우편 수령 시 기존 5,000원 → 5,000원(우편료 착불)

\*적용시기: 2025년 9월 1일부터



제16회 청풍기전국유도대회 2025. 7. 9.~14. / 충북, 청주체육관

체급	1위	2위	3위
남자초등부			
-32kg 양용재 (립동초등학교)	윤지환 (이시이소점)	정지율 (동남초등학교)	김태민 (김제법유도관)
-36kg 이의리 (송남초등학교)	한주완 (대전천동초등학교)	하정후 (김제법유도관)	유연준 (대전천동초등학교)
-42kg 배서준 (사북초등학교)	전누리 (용덕초등학교)	조윤은 (서울송초초등학교)	전성민 (안철용유도관)
-48kg 최우현 (서울송초초등학교)	민서준 (YK유도클럽)	김민재 (립동초등학교)	정수현 (사북초등학교)
-54kg 백지우 (메이유도월드팀)	정웅 (용화초등학교)	홍상운 (동남초등학교)	이진우 (동주초등학교)
-60kg 김지현 (중앙초등학교)	황대영 (소룡초등학교)	이강민 (북산초등학교)	김유건 (영동초등학교)
-66kg 김가은 (명천초등학교)	조유현 (인천신북초등학교)	최민성 (북성초등학교)	최찬영 (북안초등학교)
+66kg 최승우 (영주고등유도체육관)	이승재 (인솔초등학교)	김지호 (Y강남·유도스포츠클럽)	조우현 (judopia)경기유도관
여자초등부			
-32kg 이다인 (동주초등학교)	이시안 (해스유도클럽)	권다아 (용덕초등학교)	이나윤 (안철용유도관)
-36kg 문서아 (서울송초초등학교)	김민솔 (영동유도관)	장혜림 (순천소룡초등학교)	김아연 (비봉초등학교영구)
-40kg 안소성 (홍천유도스포츠클럽)	권지유 (미포초등학교)	김노을 (철원초등학교)	조민희 (철천가초등학교)
-44kg 강예빈 (한양유도클럽)	김은솔 (철원초등학교)	이아림 (석수초등학교)	나하엘 (소룡초등학교)
-48kg 유하율 (인천서흥초등학교)	강서은 (동남초등학교)	박지우 (사북초등학교)	황우지 (금호초등학교)
-52kg 김현수 (인천서흥초등학교)	허연우 (용인대서문체육관)	남호주 (철원초등학교)	이예서 (내성초등학교)
+52kg 김가은 (철원초등학교)	정지우 (소룡초등학교)	배나정 (안악사유도점모라점)	문늘해령 (범성포초등학교)
남자중학부			
-45kg 윤준혁 (보성중학교)	박준현 (도개중학교)	김동하 (아음중학교)	이준 (부평서중학교)
-48kg 김태우 (대전한성유도관)	김주원 (도개중학교)	성민재 (경주대성중학교)	박익겸 (신현중학교)
-51kg 최연성 (청라중학교)	황유재 (경민중학교)	이서준 (경민중학교)	이태민 (원당중학교)
-55kg 이현 (부평서중학교)	조부건 (사북중학교)	노윤 (청라중학교)	조현우 (용양중학교)
-60kg 이규연 (보성중학교)	김유찬 (부평서중학교)	이동재 (서울체육중학교)	김예준 (경민중학교)
-66kg 김동우 (서울체육중학교)	변은혁 (용양중학교)	이연준 (동지중학교)	오범택 (신철원중학교)
-73kg 이현찬 (경민중학교)	방성혁 (보성중학교)	정은성 (광주체육중학교)	홍윤재 (광주체육중학교)
-81kg 양태민 (보성중학교)	최이삭 (무궁중학교)	정승교 (운양중학교)	김준영 (물금미중학교)
-90kg 문준서 (과천중학교)	장민서 (부평서중학교)	방병원 (보성중학교)	임주원 (영성중학교)
여자중학부			
-42kg 조은설 (사북중학교)	현예지 (위미중학교)	최지은 (육천여자중학교)	손민서 (육천여자중학교)
-45kg 김민하 (중앙중학교)	최소율 (용운중학교)	류예나 (서울체육중학교)	강은채 (신현여자중학교)
-48kg 이보윤 (신현여자중학교)	박승희 (광주체육중학교)	박가은 (원당중학교)	정아연 (서울체육중학교)
-52kg 권세현 (서울체육중학교)	박선정 (광주체육중학교)	윤정현 (광북체육중학교)	안재은 (고대유도점)
-57kg 배윤빈 (연성중학교)	김예빈 (신현여자중학교)	이지나 (서울체육중학교)	박민정 (도개중학교)
-63kg 궤우수 (블라이유도센터)	김안수 (신창여자중학교)	이혜원 (인천검단중학교)	박시현 (경민여자중학교)
-70kg 이서현 (블라이유도센터)	김태희 (무궁중학교)	김려원 (신창여자중학교)	정아민 (도개중학교)
+70kg 심지민 (연미여자중학교)	문다희 (귀암중학교)	정예림 (연안중학교)	정혜민 (울산스포츠파크중학교)
남자고등부			
-55kg 이주현 (보성고등학교)	이기웅 (대성고등학교)	양현서 (남녕고등학교)	김채현 (인천체육고등학교)
-60kg 조연우 (경민고등학교)	엄정현 (경민고등학교)	임기환 (청지고등학교)	윤효원 (인천체육고등학교)
-66kg 이주환 (보성고등학교)	이재준 (남녕고등학교)	김승기 (경민고등학교)	김태영 (보성고등학교)
-73kg 홍승운 (남녕고등학교)	전민석 (신철원고등학교)	백승재 (보성고등학교)	전진솔 (인천체육고등학교)
-81kg 최성준 (경민고등학교)	고명성 (서울체육고등학교)	김동건 (경민고등학교)	한결 (강원생명과학고등학교)
-90kg 전민석 (울산생명과학고등학교)	진재현 (광주체육고등학교)	이범웅 (경남체육고등학교)	김준재 (목포고등학교)
-100kg 박근호 (경남체육고등학교)	신민석 (광주체육고등학교)	김건택 (경남체육고등학교)	김재민 (경북유연테크고등학교)
+100kg 차봄 (보성고등학교)	이진혁 (남녕고등학교)	이인웅 (충남체육고등학교)	김지웅 (강원생명과학고등학교)

단체전

종별	우승	준우승	3위	
남자초등부	사북초등학교	용화초등학교	인천서흥초등학교	양학초등학교
여자초등부	철원초등학교	인천서흥초등학교	용화초등학교	동남초등학교
남자중학부	보성중학교	운양중학교	부평서중학교	광주체육중학교
여자중학부	서울체육중학교	연성중학교	삼성중학교	용운중학교
남자고등부	경민고등학교	남녕고등학교	비봉고등학교	청석고등학교
여자고등부	서울체육고등학교	경기체육고등학교	인천체육고등학교	도개고등학교
남자대학부	김천대학교	청주대학교	마산대학교	세한대학교
여자대학부	마산대학교	대전과학기술대학교	-	-
남자일반부	국군체육부대	포항시청	경남도청	부산광역시청
여자일반부	충북도청	순천시청	부산북구청	안산시청

체급	1위	2위	3위
여자고등부			
-48kg 유하늘 (영서고등학교)	주수림 (경기체육고등학교)	김형희 (동지여자고등학교)	임연 (남녕고등학교)
-52kg 박예지 (순천미래과학고등학교)	백지호 (주산산업고등학교)	부다영 (남녕고등학교)	박수현 (금곡고등학교)
-57kg 이은지 (금곡고등학교)	이창아 (충북체육고등학교)	송가민 (서울체육고등학교)	이시현 (영서고등학교)
-63kg 홍다인 (인천체육고등학교)	최연우 (경기체육고등학교)	한울겸 (철원여자고등학교)	이아은 (도개고등학교)
-70kg 신주은 (광명여자고등학교)	강주은 (광명여자고등학교)	강재형 (충남체육고등학교)	장혜운 (경기체육고등학교)
-78kg 김지현 (경기체육고등학교)	허가은 (대구체육고등학교)	박마리 (경남체육고등학교)	이수빈 (진명고등학교)
+78kg 김하은 (광주체육고등학교)	차은서 (인천체육고등학교)	정다정 (도개고등학교)	우재진 (부산체육고등학교)
남자대학부			
-60kg 이진환 (한국체육대학교)	염형준 (경기대학교)	배수호 (선문대학교)	김유찬 (국민대학교)
-66kg 전도원 (용인대학교)	김찬욱 (용인대학교)	안현우 (한국체육대학교)	오형찬 (인하대학교)
-73kg 김어진 (한국체육대학교)	허정재 (용인대학교)	김래현 (한국체육대학교)	우정명 (한국체육대학교)
-81kg 김선우 (한국체육대학교)	박기현 (인하대학교)	문윤재 (경주대학교)	박민수 (위덕대학교)
-90kg 한성우 (국민대학교)	도현진 (경기대학교)	박하민 (용인대학교)	김대영 (용인대학교)
-100kg 김태영 (대전대학교)	박승겸 (경기대학교)	박찬찬 (용인대학교)	신민재 (국민대학교)
+100kg 강재훈 (경기대학교)	김윤건 (대구과학대학)	오규현 (우석대학교)	김민성 (세한대학교)
여자대학부			
-48kg 정수진 (용인대학교)	박소미 (마산대학교)	김민주 (용인대학교)	진해빈 (경기대학교)
-52kg 류소영 (경기대학교)	이다인 (한국체육대학교)	조은미 (국제대학교)	송나연 (경기대학교)
-57kg 김민지 (용인대학교)	남유리 (용인대학교)	김정은 (한국체육대학교)	권슬기 (한국체육대학교)
-63kg 윤우미 (경기대학교)	차아리 (용인대학교)	고은아 (용인대학교)	양지민 (용인대학교)
-70kg 지가현 (경기대학교)	김희주 (용인대학교)	모수민 (한국체육대학교)	김민주 (용인대학교)
-78kg 고가영 (한국체육대학교)	-	-	-
+78kg 정선아 (마산대학교)	김미경 (용인대학교)	김하영 (마산대학교)	임빛 (대전과학기술대학교)
남자일반부			
-60kg 천승우 (인천광역시청)	임은수 (부산광역시청)	이상민 (철원군청)	-
-66kg 이상민 (남양주시청)	조환교 (국군체육부대)	김용신 (포항시청)	박찬우 (국군체육부대)
-73kg 홍규빈 (제주특별자치도청)	채준혁 (포항시청)	최훈 (영평군청)	김대현 (인천광역시청)
-81kg 이준성 (경남도청)	고재경 (경남도청)	김지훈 (울산광역시유도회)	이윤성 (광주광역시체육회)
-90kg 김유철 (국군체육부대)	조영학 (국군체육부대)	이승수 (철원군청)	홍승은 (인천광역시청)
-100kg 한경진 (영평군청)	김도훈 (남양주시청)	서재현 (경남도청)	최민철 (제주특별자치도청)
+100kg 윤재구 (포항시청)	김현태 (부산광역시청)	문규선 (국군체육부대)	허준영 (포항시청)
여자일반부			
-48kg 허승림 (경남도청)	유주희 (충북도청)	한수연 (포항시청)	-
-52kg 황수연 (광주교통공사)	장예진 (포항시청)	양서우 (순천시청)	-
-57kg 박다솔 (순천시청)	이도현 (성동구청)	이수빈 (부산북구청)	-
-63kg 차민지 (제주특별자치도청)	이주연 (광주교통공사)	채정아 (포항시청)	-
-70kg 이예원 (부산북구청)	김지정 (순천시청)	김혜미 (광주교통공사)	정승아 (경남도청)
-78kg 윤현지 (철원군청)	송서연 (부산북구청)	문다솔 (성동구청)	김민주 (광주교통공사)
+78kg 장유경 (충북도청)	신지영 (순천시청)	김유빈 (울산광역시유도회)	손정연 (포항시청)

제41회 교보생명컵 꿈나무유도대회 2025. 7. 19.~21. / 충남, 아산시민체육관

체급	1위	2위	3위
남자초등부			
-36kg 이의리 (송남초등학교)	한주완 (대전천동초등학교)	하정후 (김제법유도관)	김현성 (인천신산초등학교)
-42kg 배서준 (사북초등학교)	황도윤 (용화초등학교)	나윤재 (소룡초등학교)	이정민 (사북초등학교)
-48kg 정수현 (사북초등학교)	강민찬 (도봉초등학교)	이현기 (사북초등학교)	김태우 (대남초등학교)
-54kg 백지우 (메이유도월드팀)	정웅 (용화초등학교)	이진우 (동주초등학교)	박도윤 (사북초등학교)
-60kg 이강민 (북성초등학교)	박해송 (익산스포츠클럽)	김유건 (영동초등학교)	박승현 (도봉초등학교)
-66kg 조유현 (인천신북초등학교)	김민건 (안철용유도관)	최효준 (사북초등학교)	최민우 (대전천동초등학교)
+66kg 박수훈 (청춘유도관(연경점))	원동휘 (송백유도관)	유하준 (대전사북초등학교)	조우현 (judopia)경기유도관

단체전

종별	우승	준우승	3위	
남자초등부	사북초등학교	양학초등학교	전주인후초등학교	용화초등학교
여자초등부	김해철천초등학교	철원초등학교	인천서흥초등학교	전주인후초등학교

2025 하계중·고등학교 유도연맹전 2025. 7. 22.~26. / 경북, 문경실내체육관

체급	1위	2위	3위
남자중학부			
-45kg 윤준혁 (보성중학교)	김도원 (연성중학교)	이규원 (보성중학교)	최태진 (보성중학교)
-48kg 김재준 (순천신중중학교)	박익겸 (신현중학교)	문주빈 (경스유도클럽 본점)	성민재 (경주대성중학교)
-51kg 최연성 (청라중학교)	조부건 (사북중학교)	최우주 (물금미중학교)	김도민 (보성중학교)
-55kg 노윤 (청라중학교)	정준혁 (보성중학교)	박준성 (금호중학교)	진재민 (원당중학교)
-60kg 이규연 (보성중학교)	김지혁 (인력중학교)	김지우 (GP유도월드점소하)	김선제 (인천검단중학교)
-66kg 문준서 (보성중학교)	정익성 (신현중학교)	이연준 (동지중학교)	김홍재 (대전대성중학교)
-73kg 변은혁 (용양중학교)	박시준 (개성중학교)	전현우 (과천중학교)	김동휘 (대전대성중학교)
-81kg 양태민 (보성중학교)	김준영 (물금미중학교)	최이삭 (무궁중학교)	이동우 (안목중학교)
-90kg 문준서 (과천중학교)	김재후 (보성중학교)	전찬 (동명중학교)	허건 (YK유도클럽)
+90kg 김한별 (삼성중학교)	이은성 (제주서중학교)	김재원 (충천유도스포츠클럽)	박민범 (금호중학교)
여자중학부			
-42kg 김슬아 (사북중학교)	안예은 (매월중학교)	차은지 (임서중학교)	신소희 (서울체육중학교)
-45kg 양아름 (매월중학교)	강민하 (중앙중학교)	류예나 (서울체육중학교)	강은채 (신현여자중학교)
-48kg 이보윤 (신현여자중학교)	장오인 (신현여자중학교)	김다미 (대전리중학교)	박가은 (원당중학교)
-52kg 권세현 (서울체육중학교)	김예빈 (신현여자중학교)	조서희 (서울체육중학교)	배대빈 (금곡중학교)
-57kg 이지나 (서울체육중학교)	이채운 (청라중학교)	김민경 (순천소룡중학교)	김진희 (서울체육중학교)
-63kg 궤우수 (블라이유도센터)	이혜원 (인력중학교)	김안수 (신창여자중학교)	육하영 (원당중학교)
-70kg 김나윤 (대전리중학교)	이서현 (블라이유도센터)	신예스터 (전북경주스포츠클럽)	김민정 (용인대원유도센터)
+70kg 임수경 (금곡중학교)	장문서 (동주여자중학교)	김태민 (원당중학교)	이서하 (용운중학교)
남자고등부			
-55kg 양현서 (남녕고등학교)	신지훈 (도개고등학교)	이다현 (인천체육고등학교)	이하늘 (용천고등학교)
-60kg 김상엽 (보성고등학교)	김동준 (경민고등학교)	조연우 (경민고등학교)	강윤서 (대성고등학교)
-66kg 김승기 (경민고등학교)	박철용 (서울체육고등학교)	박태성 (대전체육고등학교)	이주환 (보성고등학교)
-73kg 김태우 (보성고등학교)	김기영 (송도고등학교)	정재윤 (경북후면테크고등학교)	조호영 (경기체육고등학교)
-81kg 박상연 (인천체육고등학교)	김동건 (경민고등학교)	김두영 (명성고등학교)	최성준 (경민고등학교)
-90kg 전민석 (울산생명과학고등학교)	윤경일 (개성고등학교)	최현우 (해동고등학교)	방병규 (보성고등학교)
-100kg 차민호 (송도고등학교)	차서을 (경민고등학교)	신민성 (광주체육고등학교)	남상우 (경북후면테크고등학교)
+100kg 김지웅 (강원생명과학고등학교)	차봄 (보성고등학교)	남기준 (청석고등학교)	김도훈 (인천체육고등학교)
무제한 김기영 (송도고등학교)	김경민 (송도고등학교)	이진혁 (남녕고등학교)	차봄 (보성고등학교)

단체전

종별	우승	준우승	3위	
여자초등부(생활체육)	안철용유도관	구환유도관	-	-
남자중학부	보성중학교	부평서중학교	대전대성중학교	신현중학교
여자중학부	용운중학교	용운중학교	-	-
남자고등부	보성고등학교	해동고등학교	남녕고등학교	도개고등학교
여자고등부	인천체육고등학교	경남체육고등학교	-	-



2025 백제왕도 익산 생활체육전국유도대회

2025. 8. 1.~3. / 전북, 익산 실내체육관

체급	1위	2위	3위	
유 치 부				
-25kg	원하진 (원팀유도센터)			
남자중학부				
-48kg	박강건 (미스터사크왕수유도팀)	문주빈 (강스유도클럽 본점)	조승민 (한국유도권경남)	황서후 (JNS유도멀티짐)
-52kg	김태운 (대전한성유도관)	조창웅 (엘리트유도멀티짐)	박태수 (강스유도클럽 2호점)	서준범 (강성별유도멀티짐오산점)
-58kg	KIM YEGOR (강재범유도관)	이승현 (우석유도체육관)	안창민 (송탄유도관)	김의준 (대전한성유도관)
-66kg	최웅준 (김해시립유도관)	정도현 (리더유도짐)	조치현 (공명유도권전주대점)	이재범 (미스터사크해나유도짐)
-73kg	왕지원 (한산유도체육관)	임민서 (파이널유도멀티짐경남포)	양근민 (리나유도관)	이태훈 (시흥유도관)
-81kg	최강 (철원유도관)	김의준 (미스터사크해나유도짐)	김도원 (함양유도관)	박승찬 (고성유도관)
-90kg	신승우 (웅인대평택유도체육관)	여채영 (파이널유도멀티짐본점)	양도경 (미스터사크해나유도짐)	박재민 (청송유도체육관카타에미)
+90kg	김민호 (웅인대평택유도체육관)	정유준 (Judopia!경근유도관)	최영재 (미스터사크왕수유도짐)	김건우 (프라이미유도아카데미)
여자중학부				
-42kg	안서연 (미스터사크왕수유도팀)	김하린 (미스터사크왕수유도팀)	장서영 (여수탑클래스유도팀)	강민지 (백금유도클럽)
-47kg	이다현 (송탄유도관)	이아영 (송탄유도관)	문사랑 (대전한성유도관)	신수아 (선인유도관)
-52kg	안채은 (리더유도짐)	이슬 (동탄유도체육관)	이윤영 (SK유도관)	이하연 (리더유도짐)
-57kg	노민선 (강스유도클럽 본점)	정은채 (이제트유도관)	기예나 (다온유도짐)	김민경 (해안군도체육유도짐)
-63kg	손호연 (파이널멀티짐화성점)	손시연 (7송유도관)	임정연 (강재범유도관)	김정은 (광주가점스포츠클럽)
-70kg	박초록 (파이널유도멀티짐 생북점)	강연수 (청춘유도관)	박서연 (공명유도권전주대점)	고다연 (부곡강사부유도관)
+70kg	김지현 (천명유도권화성)	김누림 (미스터사크김민수유도)	김가는 (H유도멀티짐)	최정현 (광진코리야유도관)
남자고등부				
-100kg	김해성 (선분유도관)	김승준 (국가대표유도클럽)	나인호 (신사유도아카데미서평점)	김승현 (군자항유도관)
-55kg	김린우 (파이널유도멀티짐본점)	김동우 (화강유도관)	박재현 (송탄유도관)	하민수 (세종유도점아름점)
-60kg	임현성 (선인유도관)	황찬 (세종유도권아름점)	우성원 (대전유도관)	김시엽 (청춘유도관다시점)
-66kg	최무건 (웅인대투혼아주점)	변준섭 (웅인대투혼아주점)	유시후 (웅인대위농유도클럽)	손강민 (한국유도권경남)
-73kg	이택현 (선분유도관)	함건 (한산유도체육관)	지명현 (프라이미유도아카데미)	최수원 (위례유도관)
-81kg	송유빈 (파이널유도멀티짐 생북점)	최지우 (무역유도관)	강태호 (서창유도관)	박정 (천명유도관)
-90kg	권태수 (미스터사크호계유도짐)	이유민 (미스터사크해나유도짐)	김혁준 (국가대표유도클럽)	전기운 (여수탑클래스유도짐)
+100kg	김재운 (미스터사크호계유도짐)	최민준 (부산웅인대유도체육관)	우상윤 (JNS유도체육관평택)	강태윤 (미스터사크호계유도짐)
여자고등부				
-48kg	김나경 (Judopia!경근유도관)	이서영 (송탄유도권KATA)	이현주 (천명유도권화성)	김가는 (한국체대 대전유도관)
-52kg	김태림 (잠실유도관)	임규리 (선분유도관)	강영서 (BROS유도관)	김진익 (JNS유도체육관오산)
-57kg	정선아 (미스터사크호계유도짐)	류하람 (서울Y유도체육관)	권은지 (청풍유도체육관KATA)	이지안 (코라이짐해운대)
-63kg	박윤지 (대전한성유도관)	조민경 (파이널유도멀티짐 생북점)	박시연 (천명유도권화성)	강예지 (이제트유도관)
-70kg	서영채 (고성유도관)	임지현 (JNS유도체육관오산)	오혜진 (웅인대투혼유도클럽)	장기는 (유서사 유도권수원)
-78kg	장재희 (현석유도권KATA)	서지원 (청원유도관)	전하람 (경희대유도관)	안지윤 (청춘유도권남악점)
+78kg	김은혜 (한산유도체육관)	김유나 (진유도관)	전서미 (웅인대고양유도멀티짐 본점)	공나연 (코라이짐해운대)
청년부				
-100kg	김형호 (한판유도권대구)	김범수 (미스터사크김민수유도)	정승우 (JNS유도체육관수지)	안철민 (경철대학)
-60kg	송민기 (대화유도체육관)	이기성 (H유도멀티짐)	장수웅 (경철대학)	이정현 (영악유도관)
-66kg	이동호 (송탄유도관)	박무궁 (한림유도관)	유준민 (청춘유도권구미점)	이도현 (웅인대청진유도관)
-73kg	김태영 (진주유도관)	권준현 (강재범유도관)	박지현 (리나유도관)	김숙수 (부산경상대학교)
-81kg	차대성 (한판유도권대구)	박상민 (세종유도권보림점)	박지홍 (공명유도권군산)	조현우 (방탄유도관)
-90kg	김경동 (하양유도관)	구도환 (웅인대평택유도관)	박상진 (청춘유도권구미점)	전용경 (강성별유도멀티짐오산점)
+100kg	이태욱 (으라차치유도GYM)	이상철 (팀크로우유도멀티짐)	정민기 (위아더유도관)	오세훈 (국가대표유도클럽)

체급	1위	2위	3위	
중년부				
-100kg	손종율 (웅인대별유도클럽)	이진수 (미스터사크김민수유도)	-	-
-66kg	박형규 (서산유도관)	오승규 (경도관)	-	-
-73kg	최승완 (부자유도관)	KIMPYO (비른침유도관)	박세민 (공주유도관)	-
-81kg	박상현 (비른침유도관)	-	-	-
-90kg	구형호 (파이널멀티짐화성점)	손봉현 (파이널멀티짐화성점)	김연태 (백금유도클럽충주)	이용진 (JNS유도멀티짐)
+100kg	정원기 (공주유도관)	정원준 (공주유도관)	-	-
장년부				
-73kg	윤상훈 (공주유도관)	정일면 (논산시체육회)	-	-
남자초등부(1~2학년)				
-25kg	원서진 (원팀유도센터)	김세준 (미스터사크호계유도짐)	-	-
-30kg	최시아 (JNS유도체육관평택)	김기민 (청성유도관)	이승문 (한철용유도관)	한서우 (세이퍼유도)
-35kg	강예성 (U&Y유도아카데미)	서지율 (한철용유도관)	박지현 (국가대표유도클럽)	류형빈 (한철용유도관)
+35kg	조범진 (선분유도관)	김민승 (강천대현유도관)	김지후 (유서사유도권남영)	박민건 (공명유도권군산)
남자초등부(3~4학년)				
-30kg	강유준 (한철용유도관)	윤주원 (메이유도멀티짐)	이시후 (형탄유도관)	-
-35kg	김태민 (강재범유도관)	이규하 (한철용유도관)	윤리원 (메이유도멀티짐)	이도준 (이제트유도관)
-43kg	하주원 (메이유도멀티짐)	조이안 (리더유도짐)	류지현 (공양유도관)	강하람 (청용유도관)
-53kg	김건우 (웅인대유아유도관)	이태율 (백금유도클럽)	정은율 (강재범유도관)	김민준 (신사유도아카데미울릉점)
+53kg	김도성 (공양유도관)	송재운 (강해유도관)	배민수 (웅인대정진유도관)	박도현 (국가대표유도클럽)
남자초등부(5~6학년)				
-35kg	차라울 (국가대표유도클럽)	김지훈 (청원유도클럽남성점)	임태빈 (미스터사크왕수유도짐)	김중후 (강스유도클럽 2호점)
-43kg	장재성 (한림유도관)	구하준 (서천초등학교)	송지현 (드림배드유도클럽경리관)	김은성 (드림배드유도클럽경리관)
-53kg	정인우 (웅인대유도체육관한성)	조유현 (광진코리야유도관)	연진우 (신사유도아카데미충청점)	이주현 (미스터사크김민수유도)
-65kg	김민건 (한철용유도관)	최시환 (한철용유도관)	유재민 (탄방유도관)	박시율 (코라이탑유도멀티짐)
+65kg	박수범 (청춘유도권연경점)	김리듬 (청춘유도권남악점)	최도문 (웅인대석사연산유도관)	노주형 (서천초등학교)
여자초등부(1~2학년)				
-25kg	오하민 (세종유도권보림점)	이은율 (위악유도점)	-	-
-30kg	김채이 (웅인대별유도클럽)	김윤서 (이제트유도관)	-	-
+30kg	안현지 (송백유도관)	이유주 (공명유도권군산)	김송아 (웅인대유아유도관)	김다민 (이제트유도관)
여자초등부(3~4학년)				
-30kg	박현서 (서천초등학교)	이미유 (삼송유도화관)	오하린 (세종유도권보림점)	김지효 (H유도멀티짐)
-36kg	이나윤 (한철용유도관)	김윤서 (한철용유도관)	최이정 (삼송유도화관)	
-48kg	박별하 (파이널유도멀티짐한성포)	박솔민 (코라이탑유도멀티짐)	김기빈 (코라이탑유도멀티짐)	이지우 (한철용유도관)
여자초등부(5~6학년)				
-36kg	황주아 (이제트유도관)	김민솔 (한철용유도관)	박소윤 (서천초등학교)	김나은 (선인유도관)
-48kg	정아람 (함양유도관)	가윤지 (파이널멀티짐)	장민혜 (선인유도관)	유연아 (광주가점스포츠클럽)
-57kg	백지우 (세이퍼유도)	정서율 (함양유도관)	조다연 (함양유도관)	김자애 (선인유도관)
-63kg	이채민 (우석유도체육관)	김설 (청원유도클럽남성점)	-	-
+63kg	최지희 (청원유도클럽남성점)	이여울 (포항구남유도체육관)	이도의 (이제트유도관)	양지은 (청원유도클럽남성점)
여자일반부				
-48kg	한현진 (이제트유도관)	이정미 (한산유도체육관)	손현 (부산경상대학교)	박서연 (우석대학교)
-52kg	김승현 (세종유도권보림점)	조혜빈 (천명유도관)	임민주 (문남 J&J)	김태연 (한남대학교유성체)
-57kg	유민지 (JNS유도멀티짐)	김유민 (청용유도관)	정진주 (한산유도체육관)	김지원 (대화유도체육관)
-63kg	유수민 (JNS유도멀티짐)	박지빈 (한산유도체육관)	최민서 (JNS유도체육관수지)	김미지 (청춘유도권다시점)
-70kg	임지연 (BROS유도관)	변세진 (공명유도권부안점)	박민경 (드림배드유도클럽리관)	임한솔 (청춘유도권남악점)
-78kg	구민영 (삼령유도관)	-	최조연 (웅인대석사연산유도관)	-
+78kg	박서진 (한산유도체육관)	권혜원 (서부유도관)	박규리 (거송유도관)	한예진 (웅인대석사연산유도관)

단체전

종별	우승	준우승	3위	
남자초등부(4~6학년)	청춘유도관(연경점)A	서천초등학교	-	안철용유도관
남자중학부	안산유도체육관A	공명유도관(전주대점)A	청춘유도(월성동)	미스터사크왕수유도짐
여자중학부	리더유도짐	공명유도관(전주대점)A	미스터사크김민수유도	이제트유도관A
남자고등부	미스터사크호계유도짐	산본유도관	안산유도체육관A	송탄유도관
여자고등부	송탄유도관	안산유도체육관A	한국체대 태전유도관	여수탑클래스유도짐
남자일반부	한판유도관(대구)	파이널멀티짐(화성점)A	팀크로우유도멀티짐	웅인대다산유도관A
여자일반부	안산유도체육관A	거송유도관	이제트유도관A	유사사 유도관(수원)A

2025 백제왕도 익산 생활체육 전국유도대회(KATA)

2025. 8. 3. / 전북, 익산 실내체육관

선수부						
순위	1위		2위		3위	
구분	잡기	발기	잡기	발기	잡기	발기
18세 이하부(고등)						
메치기본	박준영	정지훈	이민후	정현준	안성철	윤건우
	에이스유도체육관		광양유도관		부산경호고등학교	
굳히기본	조강해	우현욱	-		-	
	명근유도관					
부드러운본	김민국	김다연	우료민	우료아	장재희	이해솔
	이승원유도관		트리니티유도		반석유도관	
호신의본	고현민	박준성	김동우	배서준	이재령	신용성
	에이스유도체육관		이승원유도관		영동유도체육관	
되치기본	함승원	최태원	이한결	기주형	-	
	이승원유도관		광양유도관			

2025 하계 전국 남·여 대학유도연맹전(2025 전국대학동아리 유도대회 겸)

2025. 8. 4.~6. / 대전, 한밭체육관

체급	1위	2위	3위	
남자대학부				
-60kg	하승우 (웅인대학교)	윤정빈 (웅인대학교)	한채민 (영남대학교)	임전현 (국민대학교)
-66kg	이태호 (웅인대학교)	전도원 (웅인대학교)	소원 (웅인대학교)	박진영 (영남대학교)
-73kg	김용민 (웅인대학교)	박성수 (동의대학교)	강성현 (웅인대학교)	엄윤상 (웅인대학교)
-81kg	송동현 (한국체육대학교)	박은상 (마산대학교)	이도현 (경기대학교)	이재필 (동의대학교)
-90kg	김문수 (웅인대학교)	한성우 (국민대학교)	이종수 (동의대학교)	도현진 (경기대학교)
-100kg	김태영 (강원대학교)	차민혁 (웅인대학교)	백성민 (웅인대학교)	박승경 (경기대학교)
+100kg	장유민 (웅인대학교)	김민성 (세한대학교)	김우현 (인하대학교)	이동현 (웅인대학교)

단체전

종별	우승	준우승	3위	
남자대학부	세한대학교	동의대학교	청주대학교	국제대학교
여자대학부	마산대학교	-	-	-



2025 김천컵 전국유도대회

2025. 8. 8.~13. / 경북, 김천실내체육관

체급	1위	2위	3위
남자초등부			
-32kg	이훈 (국민유도관)	박시유 (영학초등학교)	이지호 (judopia이경근유도관 안광채 (국민유도관)
-36kg	하정후 (김제법유도관)	김준우 (혜소유도클럽)	최지은 (영학초등학교) 김태민 (김제법유도관)
-42kg	류현서 (영정유도관)	최현성 (영학초등학교)	김도훈 (대구진각초등학교) 이서준 (청춘유도(월성동))
-48kg	강민찬 (도봉초등학교)	백지담 (도봉초등학교)	조상우 (영양초등학교) 이수호 (judopia이경근유도관)
-54kg	김지후 (혜소유도클럽)	박승우 (도봉초등학교)	최우준 (서울용암초등학교)
-60kg	유주원 (서울용암초등학교)	박승현 (도봉초등학교)	김유건 (영동초등학교) 탁가람 (영학초등학교)
-66kg	박운율 (영천동부초등학교)	주아인 (국민유도관)	백광민 (도선초등학교)
+66kg	박재현 (도선초등학교)	노주형 (서천초등학교)	김세민 (영학초등학교)
여자초등부			
-32kg	김니하 (신정초등학교)	박소윤 (서천초등학교)	이서진 (서울용암초등학교) 김예성 (서울용암초등학교)
-36kg	장혜람 (순천선홍초등학교)	변지민 (영동남초등학교)	구나윤 (고령도유도멀티짐) 이세현 (judopia이경근유도관)
-40kg	최윤아 (제이팀유도멀티짐)	조민희 (협천(가)초등학교)	이은수 (현천(가)초등학교) 송재윤 (현천(가)초등학교)
-44kg	최수지 (고령초등학교)	이서형 (영양초클럽 본팀)	
-48kg	황우지 (금호초등학교)	이지혜 (고령초등학교)	이나희 (금호초등학교)
-52kg	허연우 (용인대서대문체육관)	MUNKHBAT EMUJIN (고령초등학교)	박연우 (judopia이경근유도관)
+52kg	정예은 (도선초등학교)	김서연 (김천서부초등학교)	전예송 (영동이수초등학교) 김시연 (영천동부초등학교)
남자중학부			
-45kg	윤준혁 (보성중학교)	최태진 (보성중학교)	고은찬 (도계중학교) 명기준 (종암중학교)
-48kg	김주원 (도계중학교)	이도현 (종암중학교)	이규원 (보성중학교) 이태경 (성남중학교)
-51kg	김도민 (보성중학교)	윤백현 (해동유도관(보람점))	권지훈 (도계중학교) 장호진 (도계중학교)
-55kg	최원혁 (보성중학교)	정준혁 (보성중학교)	김현준 (보성중학교) 최원준 (보성중학교)
-60kg	양건 (노형중학교)	강지완 (애월중학교)	차민기 (성남중학교) 이기혁 (영양중학교)
-66kg	이동재 (서울체육중학교)	이규연 (보성중학교)	김서준 (보성중학교) 윤지호 (평방(가)중학교)
-73kg	전현우 (과천중학교)	문준서 (보성중학교)	김세윤 (송도중학교) 조부성 (충북영동중학교)
-81kg	양태민 (보성중학교)	차원준 (성남중학교)	엄기웅 (용인대일중유도관) 조규민 (영동중학교)
-90kg	김재후 (보성중학교)	윤지웅 (영양중학교)	임동수 (제주동중학교) 박준빈 (도계중학교)
+90kg	문준서 (과천중학교)	이한호 (중앙중학교)	김동환 (성남중학교) 박지훈 (부평(가)중학교)
여자중학부			
-42kg	안예은 (애월중학교)	최가은 (도계중학교)	정예원 (judopia이경근유도관) 윤미현 (선린중학교)
-45kg	양아름 (애월중학교)	서혜원 (용운중학교)	최소율 (용운중학교)
-48kg	정아연 (서울체육중학교)	조혜원 (포항중학교)	박서영 (도계중학교) 김아린 (도계중학교)
-52kg	권세현 (서울체육중학교)	고지안 (노형중학교)	하보민 (SKY유도관) 김유빈 (도계중학교)
-57kg	이지나 (서울체육중학교)	손예솔 (용운중학교)	김정호 (선린중학교) 김하율 (JNS유도멀티짐)
-63kg	손호연 (파이널멀티짐(화성점))	김민지 (아시아스포츠클럽)	박시우 (민석중학교)
-70kg	이현아 (연성중학교)	고유진 (도계중학교)	임지애 (상정중학교) 이다솔 (진량중학교)
+70kg	이서하 (용운중학교)	차하늬 (선린중학교)	신채원 (선린중학교) 박미나 (아시아스포츠클럽)
남자고등부			
-100kg	김재민 (경북휴먼테크고등학교)	정종혁 (경북휴먼테크고등학교) 박준원 (동지고등학교)	남상우 (경북휴먼테크고등학교)
-55kg	이기웅 (대성고등학교)	이하늘 (용천고등학교)	이한울 (형석고등학교) 신정호 (형석고등학교)
-60kg	이유찬 (도계고등학교)	류원빈 (보성고등학교)	김상일 (보성고등학교) 조현우 (경북휴먼테크고등학교)
-66kg	김태엽 (보성고등학교)	이재경 (동지고등학교)	박채웅 (경북휴먼테크고등학교) 김범수 (보성고등학교)
-73kg	김태후 (보성고등학교)	이종원 (김천중앙고등학교)	이태경 (해동고등학교) 김원준 (서울체육고등학교)
-81kg	김상규 (보성고등학교)	장세창 (삼천포중학교고등학교)	우영수 (경북휴먼테크고등학교) 김동욱 (보성고등학교)
-90kg	방병규 (보성고등학교)	최현우 (해동고등학교)	김태윤(3) (보성고등학교) 김연우 (보성고등학교)
+100kg	차봄 (보성고등학교)	김기현 (보성고등학교)	남기준 (형석고등학교) 임재민 (경북휴먼테크고등학교)

단체전

종별	우승	준우승	3위
남자초등부	도봉초등학교	양학초등학교	서울용암초등학교 영동이수초등학교
남자고등부	해동고등학교	보성고등학교	김천중앙고등학교 -
여자고등부	도개고등학교	광영여자고등학교	전북인공지능고등학교 -
남자대학부	김천대학교	대구과학대학	- -
여자대학부	선문대학교	마산대학교	- -
남자일반부	포항시청	한국마사회	용인시청 부산광역시청
여자일반부	순천시청	포항시청	충북도청 고창군청

체급	1위	2위	3위
여자고등부			
-48kg	손예은 (서울체육고등학교)	류예원 (대전한성유도관)	- 김희선 (금곡고등학교)
-52kg	정지효 (광영여자고등학교)	박수현 (금곡고등학교)	장민채 (광영여자고등학교) -
-57kg	이재경 (서울체육고등학교)	이소윤 (도개고등학교)	윤아라 (용인대법유도클럽) 이수연 (광영여자고등학교)
-63kg	이아은 (도개고등학교)	김지아 (광영여자고등학교)	조은설 (도개고등학교) 손민조 (경북자연과학고등학교)
-70kg	강주은 (광영여자고등학교)	신주은 (광영여자고등학교)	강채송 (도개고등학교) 양지연 (광영여자고등학교)
-78kg	강수민 (광영여자고등학교)	김시현 (광영여자고등학교)	이연아 (전북인공지능고등학교) -
+78kg	이승진 (도개고등학교)	정다정 (도개고등학교)	권보미 (제이팀유도멀티짐) -
남자대학부			
-100kg	정호준 (마산대학교)	정진우 (세한대학교)	한재모 (경문대학교) 이상정 (경문대학교)
-60kg	이준우 (영남대학교)	배수호 (선문대학교)	이승훈 (세한대학교) 박준용 (청주대학교)
-66kg	박진영 (영남대학교)	박호성 (마산대학교)	이현 (대구과학대학) 안수현 (선문대학교)
-73kg	이명훈 (위덕대학교)	조주현 (세한대학교)	정지운 (영남대학교) 정민호 (선문대학교)
-81kg	김대성 (청주대학교)	문윤재 (청주대학교)	최지우 (세한대학교) 김남영 (경문대학교)
-90kg	조찬휘 (영남대학교)	박은상 (마산대학교)	김민규 (대구과학대학) 김환 (김천대학교)
+100kg	김태영 (김천대학교)	백민찬 (대구과학대학)	조준호 (세한대학교) 안상민 (세한대학교)
여자대학부			
-48kg	박소미 (마산대학교)	나선영 (선문대학교)	- -
-52kg	황시은 (선문대학교)	유솔기 (선문대학교)	- -
-57kg	강나은 (선문대학교)	김담이 (선문대학교)	양은서 (이주연 (선문대학교)
-63kg	손예은 (선문대학교)	조유빈 (마산대학교)	장재원 (마산대학교) -
-70kg	고미소 (선문대학교)	김서연 (여주대학)	방가은 (동양대학교) -
-78kg	노홍비 (마산대학교)	-	- -
+78kg	정신아 (마산대학교)	-	- -
여자일반부			
-100kg	한주엽 (하이원유도)	최도훈 (부산군청)	장범석 (한국마사회) 홍석웅 (용인시청)
-60kg	김태웅 (한국마사회)	이상민 (철원군청)	김화수 (한국마사회) -
-66kg	김영웅 (부산군청)	조환규 (국군체육부대)	최인혁 (대구광역시청) 송광일 (부산군청)
-73kg	배동현 (포항시청)	양지혁 (한국마사회)	고송조 (KORAIL(코레일)) 김명진 (국군체육부대)
-81kg	안준성 (한국마사회)	최우진 (국군체육부대)	고재경 (경남도청) 김지훈 (울산광역시유도회)
-90kg	이남훈 (경남도청)	이준성 (경남도청)	김우균 (한국마사회) 조영학 (국군체육부대)
+100kg	황인호 (용인시청)	김현태 (부산광역시청)	김이현 (KORAIL(코레일)) 임혜원 (경남도청)
남자일반부			
-48kg	박은이 (고창군청)	-	유주혁 (충북도청) -
-52kg	장예진 (포항시청)	라희원 (고창군청)	김서연 (충북도청) 최정운 (부산북구청)
-57kg	정보경 (대구광역시청)	이수빈 (부산북구청)	조윤의 (광주교통공사) 이재란 (고창군청)
-63kg	김현아 (고창군청)	채정아 (포항시청)	김재령 (경남도청) 지연주 (충북도청)
-70kg	한희주 (대구광역시체육회)	유예진 (경남도청)	김지정 (순천시청) -
-78kg	이정윤 (고창군청)	송서연 (부산북구청)	이고은 (부산북구청) 정승아 (경남도청)
+78kg	박싯별 (대구광역시청)	김수민 (경남도청)	임보영 (부산북구청) 손정연 (포항시청)

제53회 추계 전국초·중·고등학교 유도연맹전(국제 유·청소년 파견 선발대회)

2025. 8. 27.~9. 1./ 경북 문경실내체육관

체급	1위	2위	3위
남자초등부			
-36kg	이익리 (송남초등학교)	김준우 (혜소유도클럽)	김도율 (인천삼산초등학교) 최지은 (영학초등학교)
-42kg	배서준 (서북초등학교)	전성민 (안철영유도관)	전누리 (용덕초등학교) 이하람 (인천삼산초등학교)
-48kg	김태우 (대법초등학교)	이주한 (미스타스3김민수유도)	이수호 (judopia이경근유도관) 김지후 (혜소유도클럽)
-54kg	홍성운 (동남초등학교)	김민건 (JNS유도체육관(수지))	이진우 (동주초등학교) 허지후 (영월군스포츠클럽)
-60kg	김지현 (중앙초등학교)	김유건 (영동초등학교)	박도윤 (서북초등학교) 이윤성 (서천초등학교)
-66kg	김가은 (영천초등학교)	김민건 (안철영유도관)	김준우 (버리미유도체육관) 이준수 (서북초등학교)
+66kg	최승우 (영주고령유도체육관)	박재현 (도선초등학교)	최시원 (형재유도관) 이준호 (대법초등학교)
여자초등부			
-32kg	이다인 (동주초등학교)	이시안 (혜소유도클럽)	박소윤 (서천초등학교) 맹지나 (신철원초등학교)
-36kg	배수현 (철원초등학교)	김민솔 (안철영유도관)	장혜람 (순천선홍초등학교) 구나윤 (고령도유도멀티짐)
-42kg	강예비 (한라유도클럽)	김노을 (철원초등학교)	김도희 (립동초등학교) 최윤아 (제이팀유도멀티짐)
-48kg	문경희 (동남초등학교)	김민건 (JNS유도체육관(수지))	이진우 (동주초등학교) 이보윤 (무곡초등학교)
-57kg	오유림 (영덕초등학교)	이보은 (김해철천초등학교)	전예송 (영동이수초등학교) 이시우 (성양초등학교)
+57kg	문혜령 (병성포초등학교)	LI HUIZHEN (영주고령유도체육관)	심민주 (논산시유도회) 김가은 (철원초등학교)
여자중학부			
-42kg	김슬아 (서북중학교)	이채안 (청주중앙중학교)	김지형 (제주서중학교) 김하임 (철원여자중학교)
-45kg	양아름 (애월중학교)	조은설 (서북중학교)	류예나 (서울체육중학교) 강나연 (북영중학교)
-48kg	장요하 (선현여자중학교)	이보윤 (선현여자중학교)	조서연 (청주중앙중학교) 정라은 (전북영무스포츠클럽)
-52kg	권세현 (서울체육중학교)	김예민 (선현여자중학교)	하보민 (SKY유도관) 배단비 (금곡중학교)
-57kg	배윤빈 (연성중학교)	이미경 (종암중학교)	이채윤 (청리중학교) 김소연 (울산스포츠파과학중학교)
-63kg	곽유주 (물라이유도센터)	이혜원 (안락중학교)	손혜원 (아시아스포츠클럽) 정현정 (선린중학교)
-70kg	이성아 (안락중학교)	김나은 (대진중학교)	이다솔 (진량중학교) 주아림 (성성중학교)
+70kg	심지민 (연무여자중학교)	정예은 (울산스포츠파과학중학교)	임수경 (금곡중학교) 박미나 (아시아스포츠클럽)
남자중학부 1학년			
-45kg	이승리 (영양중학교)	김태훈 (경민중학교)	임태현 (과천시유도회) 이동건 (신현중학교)
-48kg	안우영 (한라유도클럽)	지현호 (대전대성중학교)	김민재 (울산스포츠파과학중학교) 박지훈 (광주체육중학교)
-51kg	김상휘 (반중훈유도스쿨)	김민우 (OP유도멀티짐센터)	박영민 (충청남도스포츠클럽) 유서현 (GP유도멀티짐(소하))
-55kg	황준민 (한라유도클럽)	최민수 (경민중학교)	이원재 (청안중학교) 박재호 (안민중학교)
-60kg	임규민 (울산스포츠파과학중학교)	김세훈 (위미중학교)	유현진 (보성중학교) 고진석 (위미중학교)
-66kg	이예성 (대성중학교)	강지웅 (한라유도클럽)	사공도윤 (경민중학교) 조원익 (광운중학교)
-73kg	허성혁 (금곡중학교)	박진욱 (원광중학교)	장세윤 (울산스포츠파과학중학교) 신재혁 (일산중학교)
-81kg	윤달선 (청주대성중학교)	하현욱 (아음중학교)	WU DUYUN (관선중학교) 오지호 (경민중학교)
-90kg	김동현 (신영중학교)	김영훈 (보성중학교)	이준수 (보성중학교) 김지원 (경민중학교)
남자중학부 2학년			
-45kg	윤준혁 (보성중학교)	김동하 (아음중학교)	정재이 (송도중학교) 최태진 (보성중학교)
-48kg	박익겸 (신원중학교)	진은우 (해동중학교)	양철훈 (제주제일중학교) 강민구 (성산중학교)
-51kg	오송훈 (보성중학교)	임주원 (용문여자중학교)	이태민 (원광중학교) 김도윤 (과천중학교)
-55kg	최현성 (보성중학교)	최원준 (보성중학교)	이성현 (부산체육중학교) 이서환 (광산유도클럽 본팀)
-60kg	우재현 (금호중학교)	정도현 (원광중학교)	고민웅 (한라유도클럽) 김민준 (신원중학교)
-66kg	김동우 (서울체육중학교)	김동휘 (대전대성중학교)	고예찬 (광주체육중학교) 변은혁 (원광중학교)
-73kg	이동건 (서울체육중학교)	류승오 (석선중학교)	전태양 (보성중학교) 방성혁 (보성중학교)
-81kg	김태현 (전북중학교)	권구현 (충북체육중학교)	양준훈 (한라유도클럽) 이하율 (보성중학교)
-90kg	임준형 (동명중학교)	최윤범 (성남중학교)	임동희 (광주체육중학교) 신승민 (해동중학교)
남자중학부 3학년			
-48kg	이백산 (광주체육중학교)	최범기 (연성중학교)	김성정 (원광중학교) 강백현 (도계중학교)
-51kg	김보민 (진량중학교)	송재웅 (대전대성중학교)	김도민 (보성중학교) 윤규영 (무곡중학교)
-55kg	조부근 (서북중학교)	주민재 (서울체육중학교)	한태우 (비봉중학교) 윤길현 (금곡중학교)
-60kg	강지완 (애월중학교)	박현우 (경민중학교)	김지혁 (안락중학교) 정태웅 (통영중앙중학교)
-66kg	정익식 (선현중학교)	김홍재 (대전대성중학교)	이연준 (동지중학교) 권우영 (울산스포츠파과학중학교)

단체전

종별	우승	준우승	3위
남자초등부	서북초등학교	안철영유도관	북삼초등학교 동남초등학교
여자초등부	김해철천초등학교	철원초등학교	동남초등학교 전주인후초등학교
남자중학부	보성중학교	송도중학교	계성중학교 경민중학교
여자중학부	서울체육중학교	청라중학교	철원여자중학교 선린중학교
남자고등부	경민고등학교	인천체육고등학교	경북휴먼테크고등학교 해동고등학교
여자고등부	도개고등학교	서울체육고등학교	광영여자고등학교 금곡고등학교





12036	7단	진국	45896	고봉수	153882	장수현	153863	최윤아	153890	김은교	154007	김기현	154298	고건하	154050	김황휘	489032	이보석	488939	유도재	488846	이재현	488753	고하은	488660	이서현	488567	이원영	488474	김서현	488379	김보운
12037	강현상	45963	고지은	154255	장민환	153842	최태솔	153881	김조연	154012	표서영	154301	김건애	153861	신다혁	489031	유진아	488938	김예진	488845	이재규	488752	김준영	488659	이승찬	488566	채아경	488473	이강민	488378	노명준	
12038	강우강	45943	고지박	154261	유수현	153843	최지은	153841	오시경	153915	이남숙	154257	안진욱	154042	김준영	489030	김진재	488937	김예원	488844	김석식	488751	김순현	488658	원충현	488565	윤현우	488472	김민아	488377	조유빈	
12039	김시강	45921	고시주	154273	정승건	153844	황태경	153843	장세정	153960	박호형	154271	권욱호	154241	박민수	489028	최명결	488935	조예준	488843	송민준	488749	김원호	488656	장리하	488564	김현우	488471	조수빈	488376	김태건	
12035	이광선	45945	설준현	154275	장수인	153892	이유림	153848	김민해	153896	진호훈	153990	김무현	154044	오영준	489027	김민현	488934	오영찬	488841	송민준	488748	서휘량	488655	권동하	488562	민문기	488469	정유진	488374	김원재	
6단		13259	이장환	45891	박시우	154276	장수민	153892	이유림	153877	유병훈	154240	윤진호	153988	오영준	489026	김예민	488933	오정아	488840	송민준	488747	오정민	488654	황서준	488561	최민석	488468	김진진	488373	정희원	
13256	이동한	45938	조영찬	154270	박서민	153828	최세영	153827	김현석	154300	조완석	154108	강민서	154035	김근영	489025	오재운	488932	김진원	488839	최송환	488746	장지웅	488653	이강섭	488560	박서진	488467	서유정	488372	임가영	
13260	석정수	45949	김숙우	154260	조예호	153887	오지훈	153887	오지훈	154300	조완석	154108	강민서	154035	김근영	489024	신재현	488931	김진원	488838	홍서준	488745	박지웅	488652	최민서	488569	박서진	488466	김범주	488371	백인준	
13257	신동석	45970	최가호	154263	김상우	153906	장일운	154287	이태준	154278	설수영	154110	이서영	153858	이상범	489023	김재현	488930	김지현	488837	하수환	488744	김병무	488651	조우영	488558	김한솔	488465	김규민	488370	이성민	
13258	김기석	45948	최지훈	154293	김정훈	153907	정성훈	154239	김태경	154279	박준형	154110	이서영	153858	이상범	489022	옥상영	488929	구윤서	488836	이현만	488743	정승현	488650	정혜민	488557	김예솔	488464	김미현	488369	장준호	
5단		15777	현해속	45982	홍창기	154294	과지훈	153836	유성범	154174	이성준	154084	손성준	153961	이승재	489020	신유민	488927	조한민	488834	이정석	488741	이도현	488648	전서빈	488554	정희수	488462	나다영	488367	이혁주	
15775	이국성	45881	장서민	154283	최관호	153870	김아영	154081	공유진	154021	주민서	154086	김상현	153826	박인영	489018	김승훈	488925	강현건	488832	심유리	488739	이준원	488646	장주영	488553	진우경	488460	신태민	488365	권세은	
15774	권준영	45975	이보신	154280	김민준	153874	황재연	154091	공유진	154131	유태근	154031	윤재현	153849	안수은	489017	정보영	488924	고건준	488831	성민준	488738	최지환	488645	이지윤	488552	강소을	488459	추세영	488364	김상훈	
15772	유바형	45926	방선아	154242	서민교	153871	김민성	154103	배은우	154039	황성원	154036	박단현	153945	이메민	489016	윤아영	488923	최예민	488830	류하은	488737	이대영	488644	원예담	488551	조재아	488458	최정원	488363	김지연	
15776	안바형	45923	양민아	154246	한소화	153872	유혜성	153997	김지훈	154039	오병준	154082	문재경	153972	안성준	489015	김지백	488922	최용재	488829	김주원	488736	이준용	488643	심현우	488550	이하은	488457	김민재	488362	김지연	
15771	이재형	45939	김혜성	154250	안형진	153873	박민성	154097	이태준	154059	방정우	153839	정예원	153972	안성준	489014	양준석	488920	이동진	488827	박철준	488734	송채민	488641	박지후	488548	이민경	488455	최은서	488361	황혜민	
15773	신지홍	45924	정진주	154219	김찬진	153873	박민성	154097	이태준	154059	방정우	153839	정예원	153972	안성준	489011	최정민	488918	문주형	488825	김민건	488732	김윤석	488640	박지후	488547	박주원	488454	황은서	488360	이슬비	
15780	조성훈	45944	박지훈	154226	박민혁	153846	김경은	153993	계민우	154065	전다형	154189	김대원	154150	김준성	489010	고지민	488917	고세형	488824	유상우	488731	최윤석	488638	김태솔	488545	조주민	488452	양동훈	488358	박은결	
15778	최문기	45937	임한솔	154227	박수민	153880	신태환	153905	표현욱	153959	전다형	154189	김대원	154150	김준성	489009	김지환	488916	강서정	488823	송창민	488730	이주호	488637	김수호	488544	장가은	488451	설지선	488356	이수준	
15779	최우수	45966	남기훈	154228	김광은	153882	김차혁	153825	황지섭	153975	이시원	153879	이용준	154063	양현우	489008	이송현	488915	송예영	488822	임성진	488729	김효주	488636	고승민	488543	장아영	488450	주민국	488355	최수훈	
15770	이경일	45961	이동우	154204	김광은	153894	김차혁	153876	이성휘	153963	김수준	153945	이메민	154205	편필장	489007	김찬규	488914	박서정	488821	가서현	488728	서동국	488635	이재호	488542	윤가영	488449	최정훈	488354	윤재연	
4단		27365	조원진	45908	김부영	154210	정지훈	153895	강현수	153929	이규호	153943	평준호	154049	김주하	489006	이동진	488913	정지원	488820	이주아	488727	최세훈	488634	김현우	488541	김민재	488448	조민용	488353	윤수연	
27380	박정학	45929	정대영	154207	정민서	154207	정민서	154207	정민서	154279	정세진	153850	홍재하	153944	이유찬	489005	오혜진	488912	정혁찬	488819	정서희	488726	안찬윤	488633	김형욱	488540	이의근	488447	이혜수	488352	이강민	
27380	조정학	45959	과재열	154218	이태훈	154223	백승준	154235	백승준	153869	김기현	154195	이은섭	154265	김준우	489004	배진수	488911	이원영	488810	정재우	488817	오민주	488724	윤현민	488632	이규빈	488445	김민준	488350	황현빈	
27403	박소희	45899	박성민	154203	윤성민	154156	김민준	154214	양윤경	153886	이성현	154233	신수영	154208	배민선	489002	김지우	488909	이태욱	488816	이민지	488723	임주상	488630	김민준	488537	김선경	488444	박서현	488349	김도영	
27393	최성화	45885	박현성	154203	배도경	154038	임태영	154212	강재경	153868	박진우	154121	양우리	154138	조재																	





488286	김수안	488193	전빈	488100	김혁	488007	박지민	11268	차하	11341	임기	60606	원하	60513	정해	60420	이예	60327	구민	60234	김건	60141	권형	60048	유학	59955	임형	59862	김사	59769	염태
488285	김원조	488192	채송	488099	박진	488006	최지영	11249	하민	11340	권도	60605	하선	60512	해도	60419	이이	60326	구민	60233	건단	60140	준수	60047	오유	59954	김가	59861	김사	59768	염이
488284	김조한	488191	송유	488098	박대			11256	우유	11337	계동	60604	송승	60511	박문	60418	이재	60325	유하	60232	김선	60139	윤성	60046	홍재	59953	김수	59860	고법	59767	이시
488283	박차바	488190	김유	488097	지위			11258	하호	11332	김하	60603	김재	60510	정하	60417	이유	60324	이시	60231	강지	60138	현진	60045	채윤	59952	지윤	59859	노강	59766	박서
488282	김동민	488189	김현	488096	지범			11259	우우	11335	김아	60602	승원	60509	박은	60416	이조	60323	정은	60230	양송	60137	미서	60044	손시	59951	최유	59858	김민	59765	이회
488281	이종민	488188	박세	488095	장안			11450	우호	11323	이주	60601	원영	60508	민찬	60415	이조	60322	정은	60229	송승	60136	서준	60043	윤시	59950	최유	59857	이승	59764	이회
488280	박세호	488187	김세	488094	백운			11455	우원	11321	김가	60600	이성	60507	김민	60414	이시	60321	정지	60228	안정	60135	현준	60042	김지	59949	임지	59856	강유	59763	한지
488279	김예호	488186	김이	488093	백운			11453	우원	11278	김가	60599	김성	60506	박진	60413	김통	60320	현이	60227	김정	60134	준진	60041	전태	59948	유시	59855	장준	59762	이현
488278	김규철	488185	이동	488092	고이			11452	우원	11260	이재	60598	최낙	60505	박호	60412	김윤	60319	이서	60226	김규	60133	윤재	60040	임태	59947	이원	59854	전성	59761	송준
488277	김병규	488184	김정	488091	김승			11459	우원	11417	김태	60597	성하	60504	조림	60411	김혜	60318	조마	60225	방민	60132	윤환	60039	남진	59946	윤하	59853	신가	59760	송태
488276	김예철	488183	정성	488090	조도			11449	우원	11416	김태	60596	김하	60503	이건	60410	김혜	60317	이현	60224	김민	60131	도유	60038	홍예	59945	김진	59852	위재	59759	송태
488275	김예준	488182	한정	488089	유건			11445	우원	11432	주부	60595	한동	60502	김호	60409	정예	60316	이주	60223	박유	60130	태원	60037	김유	59944	유한	59851	김예	59758	정서
488274	김예준	488181	한정	488088	유건			11446	우원	11421	황도	60594	김담	60501	이정	60408	진윤	60315	양예	60222	신은	60129	홍예	60036	박세	59943	김혜	59850	박시	59757	정하
488273	김정준	488180	한정	488087	권우			11447	우원	11360	이로	60593	김담	60500	이규	60407	진윤	60314	정태	60221	이주	60128	김태	60035	송민	59942	이효	59849	김민	59756	최승
488272	김태진	488179	김태	488086	조순			11431	우원	11383	김정	60592	송하	60499	최재	60406	최연	60313	신민	60220	류은	60127	김태	60034	박서	59941	문하	59848	박지	59755	조영
488271	전현진	488178	김아	488085	정기			11429	우원	11336	정우	60591	이정	60498	오윤	60405	김서	60312	이진	60219	이회	60126	김태	60033	이주	59940	강태	59847	송예	59754	이하
488270	김현국	488177	공병	488084	김민			11404	우원	11334	장지	60590	박진	60497	김현	60404	김한	60311	정지	60218	김태	60125	김서	60032	이서	59939	이로	59846	김태	59753	경재
488269	김연서	488176	안우	488083	강민			11411	우원	11333	우시	60589	김진	60496	김서	60403	이서	60310	이유	60217	권예	60124	정건	60031	김서	59938	조연	59845	장하	59752	이석
488268	이시현	488175	김시	488082	김민			11409	우원	11330	신동	60588	김진	60495	양지	60402	이하	60309	이서	60216	권소	60123	최다	60030	임기	59937	강동	59844	우빈	59751	이예
488267	김해환	488174	김해	488081	김승			11366	우원	11420	박태	60587	박인	60494	박지	60401	정지	60308	윤태	60215	송승	60122	최하	60029	박기	59936	김태	59843	남나	59750	권영
488266	김지환	488173	김지	488080	송기			11384	우원	11419	가운	60586	이승	60493	조훈	60400	김명	60307	윤정	60214	최기	60121	최하	60028	김기	59935	조현	59842	나나	59749	송진
488265	김영현	488172	최희	488079	김아			11377	우원	11246	정강	60585	박소	60492	김진	60399	정지	60306	정하	60213	이태	60120	김레	60027	이윤	59934	김동	59841	오지	59748	김시
488264	김영현	488171	최희	488078	김아			11378	우원	11399	정강	60584	류은	60491	김진	60398	박우	60305	정장	60212	권우	60119	김재	60026	조건	59933	도건	59840	박진	59747	서완
488263	김현현	488170	한정	488077	김민			11379	우원	11395	강태	60583	배다	60490	정안	60397	심기	60304	유승	60211	김민	60118	정은	60025	민창	59932	장희	59839	최승	59746	이민
488262	이민현	488169	한정	488076	이아			11393	우원	11247	최태	60582	정민	60489	권민	60396	권민	60303	유정	60210	김은	60117	김현	60024	이금	59931	김은	59838	김수	59745	김형
488261	서보석	488168	한요	488075	노성			11357	우원	11396	이송	60581	조민	60488	김영	60395	유은	60302	고마	60209	곽예	60116	김나	60023	차은	59930	이시	59837	정정	59744	김현
488260	박하성	488167	박소	488074	김기			11373	우원	11397	이나	60580	배다	60487	김영	60394	김민	60301	정고	60208	최태	60115	김나	60022	김단	59929	박시	59836	목하	59743	이예
488259	박인성	488166	안의	488073	김기			11372	우원	11385	양정	60579	양실	60486	정의	60393	박지	60300	정서	60207	박태	60114	이담	60021	김서	59928	박지	59835	주하	59742	송은
488258	박보진	488165	장시	488072	김유			11375	우원	11316	박승	60578	장한	60485	강민	60392	박승	60299	박서	60206	이상	60113	김태	60020	송은	59927	김준	59834	이주	59741	안효
488257	김진진	488164	김유	488071	정우			11376	우원	11311	배지	60577	장민	60484	강민	60391	안정	60298	윤정	60205	복진	60112	홍지	60019	김치	59926	정지	59833	이예	59740	원지
488256	김진운	488163	김승	488070	최유			11354	우원	11303	백도	60576	주환	60483	김지	60390	윤지	60297	김길	60204	정세	60111	김다	60018	이예	59925	하재	59832	안가	59739	정성
488255	김진운	488162	문정	488069	호가			11353	우원	11306	김지	60575	정민	60482	정지	60389	이지	60296	김정	60203	배서	60110	문세	60017	유연	59924	안재	59831	박순	59738	정서
488254	김민성	488161	김민	488068	오영			11352	우원	11294	정우	60574	방현	60481	이선	60388	김지	60295	류석	60202	강문	60109	심윤	60016	조수	59923	김태	59830	김정	59737	송유
488253	김승하	488160	김민	488067	김지			11351	우원	11255	오정	60573	정승	60480	박준	60387	김상	60294	조재	60201	김정	60108	김세	60015	이건	59922	최지	59829	권정	59736	강준
488252	김나혜	488159	원예	488066	박유			11350	우원	11433	강하	60572	김동	60479	최연	60386	이건	60293	김민	60200	지소	60107	김준	60014	이수	59921	황인	59828	염기	59735	전서
488251	김나혜	488158	김미	488065	류수			11347	우원	11402	박성	60571	엄현	60478	정영	60385	이서	60292	김우	60199	조윤	60106	김규	60013	박정	59920	백시	59827	김민	59734	송이
488250	배현진	488157	박성	488064	신연			11348	우원	11390	정슬	60570	박슬	60477	김준	60384	최서	60291	김다	60198	홍윤	60105	이규	60012	김노	59919	김초	59826	김하	59733	최민
488249	이서우	488156	신승	488063	김승			11343	우원	11391	김재	60569	박정	60476	한지	60383	홍현	60290	모시	60197	이진	60104	김소	60011	박건	59918	김재	59825	김재	59732	김주
488248	문성민	488155	이승	488062	김승			11345	우원	11392	이민	60568	김진	60475	한지	60382	이민	60289	조현	60196	정민	60103	차은	60010	이재	59917	구자	59824	김재	59731	한민
488247	박동현	488154	이주	488061	조현			11345	우원	11244	방병	60567	한서	60474	김민	60381	김지	60288	황인	60195	김유	60102	김민	60009	박현	59916	김정	59823	김수	59730	최서
488246	최승우	488153	이소	488060	김태			11338	우원	11338	이대	60566	조상	60473	김진	60380	염지	60287	류수	60194	김성	60101	김민	60008	이윤	59915	이윤	59822	태하	59729	황보
488245	정재우	488152	이은	488059	장재			11329	우원	11371	김지	60565	박정	60472	변우	60379	윤지	60286	지현	60193	김시	60100	한시	60007	이윤	59914	김민	59821	김지	59728	오건
488244	김태현	488151	김용	488058	안소			11322	우원	11300	이예	60564	심수	60471	최다	60378	이예	60285	박시	60192	이태	60099	이도	60006	배진	59913	김민	59820	이원	59727	최영
488243	강재희	488150	김중	488057	김민			11326	우원	11458	박건	60563	김남	60470	김노	60377	전오	60284	황인	60191	장강	60098	최태	60005	위이	59912	강은	59819	홍준	59726	오하
488242	강지수	488149	박지	488056	안성			11325	우원	11425	송준	60562	손은	60469	김아	60376	정우	60283	안도	60190	최원	60097	박태								



## 딱 하나의 영양제를 골라야 한다면, 어떤 것을 생각해야 할까요?

당신의 그 생각을 알기에 [더블엑스]는 더 깊이, 더 많이, 더 넓게 생각합니다.

부족한 것을 채우는 정도를 넘어, 지키는 것까지 생각하고  
한국인에게 맞는 영양 조합은 무엇인지 더 꼼꼼하게 생각하고  
많은 영양소를 넘어, 좋은 영양소를 생각합니다.

[한국인의 영양상태와 생활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포뮬러]  
[원재료의 영양을 담아내기 위한 뉴트리라이트 컨센트레이션 테크놀로지]  
[뉴트리라이트 자체 건강 연구소 + 약 2,400만㎡ 이상의 광대한 자체 생태계농장]

당신을 위한 ‘딱 하나의 영양제’가 되기 위한 생각,  
[더블엑스]의 진심입니다.

#딱\_하나의\_영양제 #영양제를\_딱\_하나만\_고른다면  
#뉴트리라이트\_과학의\_결정체  
#한국인의\_건강공식 #한국인\_맞춤\_영양\_설계

더블엑스™



“나에게 이로운 AI, 없을까?”

라는 당신의 고민에  
한번 더 생각합니다.

거창하고 어렵기만 한 AI가 아닌,  
고객의 일상에 손쉽게 쓸모 있게.

은행이 아니라, 나에게 이로운 AI를.

나에게 이롭게. 나에게 AI롭게.

# 나에게 이롭게

모두에게 쉽고 편리하게  
금융 솔루션을 제공하는  
신한은행 시 은행원

[서울 중구 서소문(시청역 9번 출구)에 위치함 시 보러지는  
세 기술은 적용한 금융 업무를 통해 고객 편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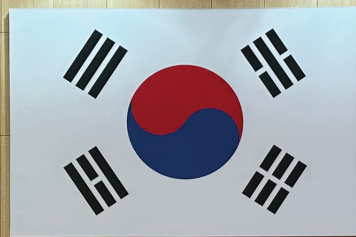


이 광고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관련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한은행 고객센터(1577-8000, 평일 9시~18시) 주말 및 공휴일 유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신한은행 2025-11-23-1호 (2025.10.26~2027.10.25)





J U D O



아디다스 컴뱃스포츠  
**ADIDAS COMBAT SPORTS KOREA**

WEBSITE : [www.acskorea.co.kr](http://www.acskorea.co.kr)  
INSTAGRAM : @acskorea\_judo  
TEL : 02-3019-3808

아디다스 유도 공식 대리점  
**(주)큰산컴퍼니**

TEL : 010-7557-1371  
ADD : 부산 남구 대연동 243-7



**주도코리아 유도복**

아디다스 컴뱃스포츠는 대한민국 유도 국가대표팀을 후원합니다.

JEWOO INTERNATIONAL CO.,LTD.  
서울 서초구 명달로 65 일흥스포타운 4층